

청.장년 책별 성경공부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론 라일스 (Ron Lyles)

레이 폴라드 (Ray Pollard)

메레디스 스톤 (Meredith Stone)

줄리 우드 (Julie Wood)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판권소유 © : 200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에베소서 학습공과 (1 과 ~ 7 과) 번역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8 과 ~ 11 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12 과 ~ 13 과) 번역
김승시 (한우리침례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학습공과 (1 과 ~ 13 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9년 9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학습 공과 저자들

레이 폴라드 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벌링턴에 살며 제 1-2 과와 에스라서 단원의 서문을 썼다. 테너시에서 태어나 그는 유니온 대학교에서 학사, 싸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에서 성서학,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은퇴를 했으며 테너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섬겼고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회의 직원이었다 그는 장년성경공부 학습지도 위한 4 번의 연재되는 성경공부의 여러과들을 썼다 (데살로니가전서; 누가의 비유; 욥; 에베소서).

줄리 우드는 부활절 공부와 학개의 단원 2 의 3 과를 썼다. 하딘시몬스 대학과 서남침례신학교를 졸업했으며, 그녀는 초등학교 개인교사와 자유작가로 활동한다. 전직 선생님, 유년부 사역자, 찬양인도자 등으로 섬겼고, 지금은 그녀의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텍사스 프랭크스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메레디스 스톤은 텍사스주 에블린에 크로스포인트 펠로우십교회의 교육목사이며 단원 3 의 4-5 과와 단원 5 의 12-14 과를 썼다. 스톤 목사는 하딘시몬스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그녀는 또한 락스던 신학교에 학생모집부서의 조정자로 일하고 있으며 하딘시몬스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구약과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

론 라일스는 텍사스주 파사디나의 남부 주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느헤미아에 대한 단원 4 의 6-11 과를 썼다. 라일스 박사는 달라스침례대학교 (학사)와 서남침례신학교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휴스턴침례대학과 락스던 신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가르쳤다. 2006 년에 그는 파사디나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시민” 이라는 상을 받았다.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2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에 대한 소개	8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에 나온 사건들의 연대기적 정리	11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공부할 날짜

제 1 과 _____	새로 시작하기	13
	(에스라 1 장)	
제 2 과 _____	예배에 기초를 놓기	20
	(에스라 3:1-7, 10-13)	

단원 2 .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제 3 과 _____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기	29
	(학개 1:1-11; 2:1-9)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제 4 과 _____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	39
	(왕상 15:9-19; 16:29-33)	
제 5 과 _____	10 가지 격려의 말	46

단원 4. 느헤미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제 6 과 _____	일을 처리하기	56
-------------	---------------	----

제 7 과	_____	(느헤미야 1 장) 신중한 계획과 착수.....	64
제 8 과	_____	(느헤미야 2 장) 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72
제 9 과	_____	(느헤미야 3:1-12; 4:1-6) 신실하게 행동하라.....	79
제 10 과	_____	(느헤미야 5 장)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86
제 11 과	_____	(느헤미야 7:73b;8:1-4a, 9-18) 하나님께 감사.....	94
		(느헤미야 12:27-43)	

단원 5. 말라기: 질문과 대답

제 12 과	_____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102
		(말라기 2:17 - 3:5)	
제 13 과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정말 심판하실까?.....	110
		(말라기 2:17 - 3:5)	
제 14 과	_____	왜 우리는 회개해알 할까?.....	117
		(말라기 3:6 - 12)	
부 활 절	_____	주님을 보라!	124
		(요한복음 20:1-18)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에 대한 소개 :

미래를 재건하기

미래를 재건하는 것이란?

미래를 재건하는 것이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회복을 주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지만,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된 후 다시 유다로의 귀환하는 추방자들의 경우에는 미래를 재건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이 상황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기원전 587 년에 이미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 바빌론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다의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 당했을 때 등이 예이다.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려면 열왕기 하 25:1-30 과 역대하 36:1-21 을 읽어보라. 이 시점에서 유다의 미래는 냉혹한 것처럼 보였다.

그 때에 유다의 상황은 바뀌게 된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점령 당한 민족들을 통치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어 놓는다. 기원전 539 년을 기점으로 하여 고레스 왕의 정책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포로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후로 기원전 538 년에 유다의 본국 송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포로생활로 부터의 귀환을 계기로 하여 유다는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그들이 할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미래를 회복할 것인가?

성경의 다섯가지 책-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에서는 위의 의문들을 다양한 각도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성전에서의 나라 전체적인 예배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와 말라기에서는 어느정도 언급),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심(다섯 책 모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책들 모두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기원전 539년 시기 또는 그 이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학개와 적어도 스가랴의 첫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러한 책들이 그시대에 해당되며 또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학개의 시간적 배경을 알아내기는 쉽다. 학개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시기를 나타낸다. 이는 기원전 520년이다. 덧붙여 이 책은 주로 세번의 다른 날들에 주어진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학개 1:1; 2:1; 2:10)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날짜를 따져 본다면 8월 29일, 10월 17일 그리고 12월 18일이 된다.

스가랴 1장과 7장에서도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 (스가랴 1:1,7 ; 7:1). 이러한 날짜는 스가랴서의 사건들이 (특히 1장에서 8장까지) 학개와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뛰어난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연결이 되었나와 또한 그 시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사역을 하였고 또한 에스라가 느헤미야 보다 먼저 사역하였다는 것이다.

말라기가 이시간에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섯가지 모든 책은 유다로의 귀환후의 시기, 즉 미래를 재건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되찾기에 애쓰고 있을 때 쓰여 졌다는 것이다.

이번 공부에서 각각의 과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에 나온 사건들의 계보” 도표를 참고해보라.

적용및 실천

우리가 비록 이러한 책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해도, 이 책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로마서 15: 4 를 참고)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내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 다시 시작하기” 에 대한 에스라의 메세지; 학개가 던지는 “재건에 대한 도전” 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학개를 돕는 스가랴; “완성을 향해 나아감” 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따르는 말라기의 열정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미래의 재건등이다.

우리가 “미래의 재건”이라는 제목 아래 위의 다섯가지 책들을 공부할 때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제목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야만 한다. 사실은 그날의 그 사람들은 미래를 재건하지 않았다. -일부는 했을 지 몰라도, 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약이 있는 이유이다.

주의사항: 이 성경 공부가 처음으로 출판되는 기간이 부활절 이기 때문에 부활절 성경 공부가 제공된다.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에 나온 사건들의 연대기적 정리		
연대	사건	일반적인 시간구조에 있어서의 성경공부 진행
기원전 587-586년	바빌론이 유다를 점령한 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킴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점령하고 포로 귀환을 허락함	
기원전 538년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유다 민족의 첫번째 귀환이 이루어 짐	제 1 과 에스라 1 장
기원전 537년	성전 예배의 부활; 성전의 기반이 다져짐	제 2 과 에스라 3:1-7, 10-13
기원전 520년	학개가 성전 건축의 긴급한 필요성 대해 설교를 함	제 3 과 학개 1:1-11, 2:1-9
기원전 520 - 518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위해 사람들을 격려함	제 4 과 스가랴 1:1-17 제 5 과 스가랴 8
기원전 516년	성전 재건 완성 및 봉헌	
기원전 480년?	말라기? (아래 내용참조)	
기원전 458년	서기관 에스라의 예루살렘으로 귀환	
기원전 445-430년	느헤미야서에 나온 사건들이 일어남	제 6 과 느헤미야 1 장 제 7 과 느헤미야 2 장 제 8 과 느헤미야 3:1-12; 4:1-6 제 9 과 느헤미야 5:1-19 제 10 과 느헤미야 7:73b; 8:1-4a, 9-18 제 11 과 느헤미야 12:27-43
	말라기의 설교는 아마도 기원전 480년, 에스라의 부흥 운동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건들의 이전으로 추정.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건들 이후로 볼 수도 있음; 연대가 불분명함.	제 12 과 말라기 1:6-14; 2:4-9 제 13 과 말라기 2:17-3:5 제 14 과 말라기 3:6-12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히브리인들의 역사에는 주기적으로 많은 의미있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기원전 587 년경에 일어났던, 유다 사람들의 강제 이주와 솔로몬 성전 붕괴를 가져온 바빌론의 침략이 이러한 사건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역대하 36:15-20 에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 39-45 장에는 보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온다.

대략 50 년 후인 기원전 539 년경,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왕국에 의한 바빌론의 멸망은 유다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준다. 이 사건은 페르시아 왕국 전체로 놓고 볼때 아주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수천명의 유다 사람들을 종교적 생활을 위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것은, 포로 국가 사람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사회 불안과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고레스 왕의 단순한 정책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반복되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 고레스 왕의 승인으로 인한 포로 귀환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민족 대 이동의 중요한 사건 두가지 중 하나로 꼽힌다.

기원전 516 년에 성전 재건의 봉헌으로 유다 역사의 새로운 획이 그어졌다. 성전 봉헌 후 5,60 년 뒤에 또 다른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완성하는 승인을 해주었다. 이 부분은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구약서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책은 유다의 귀환과 재건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묘사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인 역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번 제 1 단원의 두과의 강의에서는 유다포로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초점을 두고있는 에스라를 본문으로 하고자 한다.¹

제 1 단원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제 1 과	새로 시작하기	에스라 1
제 2 과	예배에 기초를 놓기	에스라 3:1-7, 10-13

¹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성경 본문은 표준 새번역을 기준으로 한다.

<p>[제 1 과]</p>	<p>새로 시작하기</p>
<p>핵심본문 에스라 1 장</p> <p>배경 에스라 1 장</p>	<p>학습주제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 조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p> <p>탐구질문 오늘날에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가?</p> <p>학습목표 어른들에게(성경공부반원들) 어떻게 유다 사람들의 귀환 사건이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고, 그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다른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게한다.</p>

들어가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섭리로 이루어 지는 일들은 그의 약속들을 지키는데 있어서의 새 출발에 희망을 준다.

내 아내와 나는 최근에 뉴 올리언즈에 있는 한 봉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뉴올리언즈가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황폐해진 2년 후의 일이었다. 우리는 태풍 이후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우리는 태풍이 그 사람들의 집과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를 파괴 시켜버린 이후 얼마나 큰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재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다. 새 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재활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공허함을 주고 치료를 필요로 하게 한다.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종종 우울증 정도의 심각함이 생기기도 한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할 때조차도 오랜 친구들과 친한 이웃들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커다란 희망 중 하나는 새출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종종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다시 주어진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형에서 성공에 도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특별한 기회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수 십년 동안 유다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강제 이주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수 있다.

본문해설

새로 출발할 필요에 처한 사람들(1:1-4)

오늘의 성경 공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유다(예루살렘과 구 남왕조)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기원전 586년경 예루살렘의 붕괴로 성벽과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후의 자손들은 바빌론에 정착하도록 강요되었고,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완성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예레미야 29:1-14를 참조하라.)

성경에서의 서사적인 이야기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들의 가치관의 근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 관한 기록들은 그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다. 역대상, 역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조망,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동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에 대해 그리고 있다.

에스라는 역대하의 끝부분에서 시작한다. 성경 학자들은 동시대의 책인 역대상, 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진술하려는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보는 관점에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들이 유다의 패배, 바벨론 강제 이주,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재건을 위한 귀환을 내용으로 하여 쓰여졌지만 각각의 책들을 보다 독립적인 책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을 정복했다. 그는 그가 정복한 백성들에 대해 취한 정책은 바빌론과 달랐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대신,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에스라 1:2-4에서 저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법령을 인용한다. 이것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몇가지 공식적인 법령 중 첫번째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이외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시대에 발견된 일반적인 문서들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포로들의 귀환으로 최소한 두 번의 민족 이동이 일어났다. 분명히 몇몇의 작은 소그룹들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에스라서 1장에서는 첫번째 민족 대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에스라 7장에서는 이미 시작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 있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사건들의 연대기적 정리’ 도표를 참조하라).

순종함에 대한 도전(1:5)

우리 가족은 수십년 동안 미국 동쪽 해안 부근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푸른 산등성이가 있는 산을 건너 펼쳐져 있는 서쪽지역으로 자주 여행을 갔다. 우리는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울퉁 불퉁한 산들을 통과하며, 멈추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갔다. 하지만 반세기 이전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 산들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아내의 할머니를 통해 들었다. 그들은 인디언들이나 미개척지 선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나,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을 따라 가야만 했다. 그들은 서쪽 지역으로 미개발 지역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며 찾아갔다. 이러한 여행을 이끄는 동기는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에스라서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바빌론 왕국이 고레스에게 패배한 예상치 못한일이 일어났다. 고레스 왕은 즉각적으로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에스라 1:5)은 바빌론으로 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끌었다. 저자는 두 지파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이들이 다윗 왕족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바빌론으로 이주한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종족들은 바빌론에게 최후로 패하기 이전, 남왕조의 대부분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웠고, 희망으로 가득차으며,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은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데, 이러한 유다사람들을 위한 의무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는 이주민들의 행렬을 상상해 보라. 그 여행은 험난했고, 불가능해 보였고, 불확신 속에 있었다. 그 길은 1000마일 정도의 거리였다. 바빌론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이것이 긴 여행이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사실 첫걸음을 떼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옛날에 있어서 여행의 어려움들은 결코 쉽지 않았고,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도 무리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돌아갈 것을 결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일 뿐, 그곳은 미지의 새로운 장소인 것이다. 떠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숙한 집으로 부터, 그들에게 있었던 직장, 친구들을 남겨둔 채, 자신의 뿌리가 되고 있었던 것들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향해 갔다. 고대 역사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로의 여행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기 보다는 바빌론에 남기로 했다고 전한다.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왜 자신이 미래의 불확실함을 위해 과거의 안전한 삶을 떠나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간을 거쳤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용기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이들의 이름들을 에스라 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약속은 여행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격려 이상의 큰 의미였다. 포로 기간의 오랜 시간 동안에도 그들을 돌보아 주신 인내많은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그들의 결심은 여행의 두려움에 비해 훨씬

더 컸다. 당연히 히브리인들은 포로에서 자유로가는 이 두번째 출애굽이야기를 잘 보존했다. 우리는 에스라서는 유다의 귀환의 사건후 수십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끝날것 같았지만 이들은 또다른 새출발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문맥상으로 보아 이 사람들이 더이상 귀환과 재건에 흥미로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의 성전과 성벽으로 부터의 안전함 속에 익숙해져 버렸다. 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회복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예배 처소

에스라서의 저자가 귀환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성전의 장소와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에 중요성을 두는것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으며 그들이 숭배하는 신상들을 함께 보냈다. 유다 사람들은 신상이 없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바빌론 사람들이 약탈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왕하 25:14-15)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돌려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유다 민족이 귀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국가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의 성실함과 희생의 결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한다. 자손 세대들은 이 일이 단지 먼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인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상기 시켜준다. 먼저는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황제의 법령과 바빌론 지역의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취 되었다.

많은 경우에 구약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성경은 정복한 제국에 의해 포로 생활로 인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새로운 환경에 쉽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묘사한다.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자유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레스라는 사람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이 재건을 시작하셨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렘 29:10-14)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남은 이의 증언을 통해 생생히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한가지 사실은 바빌론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들은 국가적인 테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황제 고레스는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을 지도 모른다. 포로들 중 몇몇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져 버린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이 그들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에 고통 받았을 지는 몰라도, 은혜로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과 함께 있었다.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다.

적용 및 실천

마지막으로 이번 본문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루 하루를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파괴하기 이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목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들의 거부와 현명하지 못한 국가 지도력은 민족이 포로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끊임없고,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은 하나의 희망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실것이라 선언했다. 이번 과는 다시하는 시작으로 인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준다.

질문

1.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2.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은 새로운 출발로 인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겪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러한 도전에 반응하였는가?

3.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끈 두 지파에 대해 언급한다. 침례교 역사 또는 당신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도전이 되었던 일이 성취되도록 이끈 사람은 누구였는가?

4. 새로운 출발을 하는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 일에는 용기, 지혜, 활동력이 필요하다. 어떠한 손실이나 어려움 이후, 하나님이 당신이 새출발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자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또는 당신 가족 중 어떻게 이러한 자원들이 이로움을 주었나를 나누어 보라.

[참고]

성전 그릇

고대 역사에 있어서 승전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갔다. 패배한 나라의 신에 대해서도 승리했다는 표현으로서 승자의 성전에 이것들을 전시해 놓았다. 그것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이었다. 유다 민족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물건들을 성전에서 가지고 갔다. (왕하 24:13) 이 본문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물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열왕기 상 7장 13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성전 물품 목록과 비교해보라.

성전 그릇들이 반환된 것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한 돈의 가치를 떠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쓰여졌던 물품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사례 연구

해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이 태풍에 의해 황폐화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며칠 안에 그들에 집에서 탈출해야했고 그들은 미대륙 안쪽으로 떠났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건물이 부서진 것을 보았다. 돌아온 첫번째 주일,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회건물이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다. 당신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안을 하고 싶은가?

<p>[제 2 과]</p>	<p>예배에 기초를 놓기</p>
<p>핵심본문 에스라 3:1-7, 10-13</p> <p>배경 에스라 3 장</p>	<p>학습주제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장려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그렇게 할수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에 드리며, 또한 어느 정도까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것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크게 격려할 수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한다.</p>

들어가기

귀환한 추방자들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다.

우리 교회는 요즘 한 난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가족은 지난 8년간 난민 캠프에서 생활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정착하고자 하여 오게 되었다.

새롭고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사했을 때 겪게 되는 힘겨운 적응 문제에 대해 생각나게 한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기후의 변화, 그리고 법적인 사소한 문제들은 이 가족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로 꼽힌다.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들이 미국에서 맞는 첫번째 주일,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따뜻한 포옹과 예배가 끝난 후 서로 악수를 나누는 것, 그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유다의 귀환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들에게 있었던 귀환에 대한 흥분들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위기감 또한 볼 수 있다. 예배는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에스라서 도입 부분의 중심 인물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이다. 고레스왕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민족 재건의 시작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문해설

회복된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배의 시작 (3:1-7)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번 장을 도입하는 성경 구절에서 예배를 위한 곳을 재건축하는 일이 첫번째 귀환 후 곧 바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떠나는 것을 허락한 후 곧바로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첫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로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도착하게 된지 수 개월 내로 제단과 성전의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이 대목을 이러한 말로 정확하게 서술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에스라 3:1, 표준새번역) 이 제단을 위한 일은 황제의 법령의 결과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시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다. 그들 앞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 하나님의 의식과 함께해야하는 필요를 느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감사와 찬양의 화답,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번째 시점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희생 제물이 놓아질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예전 성전으로부터 제단의 기초 다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시작했다.

예수아 (대제사장)와 다른 지도자들이 제단을 준비하는 쉽지 않은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유산인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3:2) 모세의 영성과 모범을 떠올리게 되었다. 저자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부터 나오는 역사적 출애굽을 기억했다고 전하는데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것에 대해 예배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하셨다. (출애굽기 20:24을 참조) 에스라서 3장에 나타난 경험은 제단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것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유산과 연결하는 다른노력이다.

3절에서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포로로 바빌론으로 가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론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느부갓네살의 정책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격려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땅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이 제사의 예물을 드려 “초막절을 지켰다” (3:4)는 것을 듣는다. 초막절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한 일년에 3번 열리는 축제 중 하나이다. 이 축제는 출애굽한 순간들을 돌아보고 광야에서 여행했던 시기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천막 (임시처소)” 이라는 것은 그늘이나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해 나뭇가지들로 엮고 긴 장대로 버팀목을 한 간단한 구조물을 일컫는다. 이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은 바빌론에서의

귀환과 나란히 놓기위한 의도처럼 보여진다.

성전에 기반놓기 (3:10-13)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옛 건물의 기반을 찾아냈다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는 이번 장 후반부에서 옛 성전에 있었던 모든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귀환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경험담은 과거의 경험속에 있는 예배의 근원을 찾아내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열망을 말한다.

나의 사역에 있어서 기억할만한 경험 중 하나는 옛 성전을 새성전으로 바꾸어야만 해야했던 교인들을 섬긴것이다. 오랜 세월에서 온 황폐함과 두번의 화재에서 온 손실로 인해서 더이상 구 건물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그래서 교인들은 새로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단지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한 작업이 아니었다. 전의 예배당은 수십년동안 예배 모임 장소로서 이용되어졌다. 이곳은 침례,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많은 예식의 장소이기도 했다. 훌륭한 설교가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었고, 삶을 바꾸는 결정들이 만들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히 상당한 적응을 요구했다.

예배와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는 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구성전의 많은 특징을 지닐수 있는 설계도를 제안했다. 좌석의 위치는 전의 건물의 특징을 반영했다. 색유리로 된 창문은 고전적인 미를 더해 다시 이용되었다. 구 성전의 모퉁이 돌은 다시 옮겨져서 새롭게 준비된 새로운 모퉁이 돌에 합쳐졌다. 새성전이 완성된 후 첫 주일날,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친숙한- 친숙한 창문이 있는, 전의 성전에서 사용된 물건들이 있는 곳에 둘러쌓인- 새로운 좌석에 앉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했다. 우리가 교회의 삶에서 새로운 시기를 시작할 때 그 날은 모든것이 잘 진행되었고 축재의 분위기였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가지였다. 어떤 사람들은 웅장한 전의 성전을 기억했다. 원래 있었던 성전은 약 60년 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억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소리높여 울었다” (3:12) 라고 듣는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오래동안 꿈꾸어 왔던 것이 실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울었다. 학개서 2:1-4 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구조가 구성전의 화려함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울었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대신할 재정이나

물적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안정감이나 영원성을 주는 예배의 처소가 생긴것에 대한 기쁨에 소리쳤다.

그들의 힘든 노동과 결단력이 꿈의 시작을 가져왔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에 부여된 너무 많은 중요성이 잘못된것 같을 지도 모른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21-24). 그러나 유다의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간 타국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과 세상에서의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에, 성전재건의 사건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기초를 놓는것으로 인해 예복을 입은 제사장, 돕는사람들, 음악가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다” (에스라 3:11)라고 노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반

에스라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제단과 성전이 재건되는 일과 유다 전통 예배가 다시 설립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믿음의 개인적인 결단이나 순종하는 삶은 외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유혹을 받는다. 성경의 메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는 개념, 즉 예배, 교제, 증인되는 삶, 함께 노력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한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된 사람들은 이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 써졌는데 그 이유는 그 때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흥분과 기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이다.

침례교 유산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로드 아일랜드의 지역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로저 윌리엄의 지도아래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개척된 것을 떠오르게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있는 아름다운 제일 침례교회는 우리를 미국 남부 지역에 있었던 침례교 운동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게 한다. 여러분 또한 자신에게 특별하고, 의미있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

세계에 있는 웅장한 성당이나 교회건물의 둘러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를 세우는데 들어간 놀랄만한 비용과 그에 따른 희생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빌딩들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예배는 건물, 제단, 장식등 비록 그러한 것들이 상징적으로 의미있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의미있는 것이다. 잘 준비된 모임을 위한 모든 요소들을 구비한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수 있게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훌륭한 성당들은 오늘날 관광객들이 잠시 방문하는 것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이 행한 결정과 열정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다. 기초를 놓는데에 대한 반응은 자발적이었고 힘이 있었다.

적용 및 실천

최근 우리는 적절한 예배의 스타일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예배 전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서로 다른 음악적 취향과 교회 장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분열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할 때 우리는 축하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서야만 한다.

제단과 성전의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유다 사람들이 일찌기 모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아올 때 우리에게서 서로 연합됨이 필요하다. 어떠한 신조 혹은 이름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연합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서 연합함이 나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진실한 겸손함을 실행함으로, 만날 때에 연합함이 새로와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힘있게 올려질 것이다.

질문

1.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습관적인 예배 아닌 그보다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때를 떠올려보라. 무엇이 이러한 차이가 나게 했는가?

2. 예배드리는 것에 장소를 제공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험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준비한다.
3. 당신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라. 각각의 요소들은 예배를 위한 기회들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4. 에스라서의 목적 중 하나는 경배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경외감과 예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데에 있다. 당신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무엇이었나?

[참고]

제단

구약에 있어서 제단은 하나님께 동물을 태워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흠이나 다듬어 지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간단한 제단에서 부터 솔로몬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제단(열왕기 상 8:64),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을 위해 에스겔이 예견한 정교한 제단에 이르기까지,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동기 예를 들면, 감사함, 속죄를 구함,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상징으로 음식을 나누기를 즐기려는 이유 등에 의해 제물들은 제단에 올려졌다.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단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배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들

- 삶의 경험들을 조용히 조명해보는 시간을 매일 갖는다.
-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그 주변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기를 쓴다.
-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참여자로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곰곰히 생각해보라.
-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다른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은 방법들을 생각하라.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일한 예언자 (4 개월 못미치는 동안의 사역)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에스라 4:24-5:1 은 페르시아 왕 2 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고 전한다. 비슷하게, 학개 1:1 과 스가랴 1:1 은 서두에서 같은 시기를 밝힌다. 그러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삽입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역사적인 근거에 맞추어보아서, 학개의 사역은 기원전 520 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² 그의 메세지를 통하여, 학개는 그의 말씀이 “만군의 주” 로 부터 왔다고 밝힌다. 학개의 첫번째 설교는 8 월 29 일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학개 1:1) 일어났다. 학개의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내용은 그들이 성전, 즉 하나님이 사람들안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을 재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지도자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은 하나님의 거처를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때에 맞지 않는 변명을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역관계의 책임을 게을리했고 항상 그들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힘들게 노력해야하는 삶의 조건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시도에서 실패를 참아야 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성전공사를 “여섯번째 달 24 일” 우리 시간으로는 9 월 21 일에 시작했다 (학개 1:14-15). “일곱째달 21 일에” 우리시간으로는 10 월 17 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과 예상하지 않았던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직접적인 사랑과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공사의 진전을 축하하며 그들의 믿음으로의 순종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들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홉째달 24 일” 에 (2:10), 우리의 시간으로 12 월 18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삶을 보여서 그들의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와 봉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게하는 그의 열망을 표현하신다. 학개는 바로 그날 (2:20) 스룹바벨에게 마지막의 충고를 하고 그의 공적인 사역을 마감한다.

확실히, 학개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불과 5 년 못미친 기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거처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있어서의 명백한 냉담함에서 떠나 기쁨으로 드러진 완성된 성전을 획득하는 것으로 옮겨진다 (에스라 6:14-16).

² 특별히 밝히지 않는한 단원 2 의 3 과에서 쓰이는 모든 성경의 발체는 표준새번역으로 한다.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학개 선지자의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을 향한 말씀과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예배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몇세기 이후의 사도 야고보에 의해 되풀이 된 것처럼, 학개는 일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야고보 2:17; 학개 2:10, 19b).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우선권은 그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증거이다.

<p>[제 3 과]</p>	<p>하나님의 일에 우선권 두기</p>
<p>핵심본문 학개 1:1-11; 2:1-9</p> <p>배경 학개 1-2</p>	<p>학습주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 존귀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에 기여하는 것을 요구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어느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른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게으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p> <p>학습목표 성경공부그룹이 얼마만큼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가와 하나님의 일에 큰 우선권을 두는가를 평가하도록 이끈다.</p>

들어가기

학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도전하셨다.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불안정한 기초, 물이 새는 지붕, 깨어진 하수도, 기능이 잘 안되는 통풍시스템- 대부분의 집주인들을 진력나게 하는 말들이다 (비용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수리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끝냈을 때에 느끼는 말할수 없는 성취감을 생각해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코 끝내지 않을 일들을 시작한다. 마이크라는 텔레비전의 계약자는 수천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거나 개량하지만 투자에 비해 결실이 없이 미완성되거나 끝내기 어려운채로 남겨진 공사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일을 한다. 그의 임무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계약자가 일을 포기한 후에 그가 나서는 것이다. 그는 그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다시시작해서 적당한 시간안에 장인의 품질로 일을 끝내 놓는다.

마이크가 따라다니는 공사계약자 모두가 게으르게 돈만 벌려는 사람들은 아니다. 가끔, 어떤 일들은 계약자의 지식과 능력을 능가한다. 다른 때에는 계약자는 그일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상황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학개 선지자의 시절에는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다. 포로생활로 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집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그들을 낙담시키는 방해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의 집을 미완성으로 남겨 놓은 채 그들의 재산에만 주의를 쏟게했다. 비록 학개 선지자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가져다 놓으므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안에 있을 수 있는 영원한 구조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학개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날카로운 말씀을 보내셨다.

본문해설

시기적절하지 못한 변명 (1:1-4)

학개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제 2년에 여섯번째 달 첫날 (8월 29일, 주전 520년) 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로 알려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는 사자로 그가 누구인지 밝히며 그의 설교를 시작한다. 모세의 율법에 빠르면, 그 달 첫날은 제사와 축제로 구별된 날이다 (민수기 28: 11-15 참조). 이러한 감사의 즐거운 분위기에 학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히브리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하므로 그들은 영적인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참조)

비록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자신을 묘사하는 말로 학개 1:2 에 야훼 라는 이름을 쓰시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학개 1:2) 이라고 칭한다. 분명히, 어떠한 것이 관계에서 빠져있는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음은 사람들의 성전건축을 완성하는데 실패한데에 기인한다. 계속 구조에 대해 공사를 하자고 재안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 때가 되지 않았다 (1:2)” 라고 했다. 몇가지의 이론이 이 주저함을 설명한다.

첫번째, 그들은 아마도 정치적인 불안으로 성전의 미완성의 비난을 돌렸다. 다리우스는 평화적으로 왕좌에 오르지 않았고 왕이 된지 3년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위협때문에 기초공사후에 건축을 멈추었다 (에스라 4:4).

두번째로, 그들은 아마 그들이 성전을 효과적으로 지을 자원이 없다고 믿었다. 이것은 그럴듯한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뒷부분에 그의 공급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자원은 아마 매우 한정되었고, 사람들은 있는 자원을 다 사용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했다.

세번째로, 히브리사람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예언의 진리를 파괴하기가 두려워 성전건축을 완성하면 안된다고 느꼈다.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29:10)은 성전이 70년 후에 재건축 될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언제가 포로생활이 시작됐는지 의견이 서로 달랐다 (70년을 헤아리는 방식이 달랐다).

만일 주전 586년 부터 (느브갓세살왕이 성전을 무너뜨린) 센다면, 단지 66년이 지난것이다. 만일 605년부터 센다면 (느브갓네살왕의 첫번째 침략), 시간은 벌써 지난것이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지체의 가장 주된 이유는, 냉담함,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편리한 변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으셨다. 그는 학개선지자를 통해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학개 1:3).

주전 587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추방되게 하셨다. 페르시아왕인 고레스는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추방된 곳에서 떠나 (현대에 이라크) 그들의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갈것을 허락했다. 주전 537년 혹은 536년에 세스바살 총독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기위해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20년정도 동안에 그 기초는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다- 성전을 재건축함에 의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에 그순간에 성전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물리적인 암시인 성전을 갖는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단장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4절에 나오는 “페널로된 집”이라는 것은 백향목 페널로 된것, 전통적으로 왕족의 거처에서 쓰이던 재료를 묘사한다. 학개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사람들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구체적인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왕이 그는 백향목으로 된 집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커튼안에 있다” 는 것 때문에 슬퍼한 역사에서 남겨진 전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 (1:5-11)

학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소행을 살펴보라” 라고 물으면서 그의 첫 설교를 이어간다 (학개 1:5,7).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과거, 현재, 미래를 공공히 생각하라고 촉구한다.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위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히 했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열방중에 축복된 민족이었다. 현재는 그들은 성전없이 지냈고 줄어드는 소득의 상황에있었다. 비록 그들은 씨를 많이 뿌렸지만 수확은 적었다. 가뭄으로 인해 그들의 갈증은 충족되지 못했다. 비록 소득이 있었지만, 그 소득은 받는 순간에 모두 쓰여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17)이라고 하는 높은 기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나, 여기에서의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 몇몇의 제한된 사람만이 포로상황에서 직위를 얻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대신에 가난을 겪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번영하는 삶의 방식을 고대했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자연에 그의 능력과 권위를 보이시려 그 필요들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어려움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였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영적문제를 게을리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쉽게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 성전의 재건축 (학개 1:8). 이것은 쉬운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헌신의 증거였다. 공사는 그들로 하여그 산에가서 나무를 해오는 것도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포함한다. 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흔했지만 건축을 위한 나무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4 세기 이전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레바논에서 목재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에 좋은 백향목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는 마음이 담긴 산의 나무들을 원하셨고 그것을 가져오는것은 사람들의 노동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그에게 영광돌리는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오는 것이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황폐되었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자신들의 일만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훈련하심을 계속하신다고 설명하신다. 사람들의 게으름은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었고, 그들의 일과 생산성에서 그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그 게으름의 중함을 알리는것이 필요했다.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냉정한 비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파기하였다. 언약의 개관은 신명기 6:18에 나온다: “너희는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분명히 일들이 잘되어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시자신만 탓할수 밖에 없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도 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

비록 공식적인 초청은 학개의 설교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지도권들이 존경을 표시하는 경외로 반응하도록 기다리신 것이 분명하다 (학개 1:12).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에 따라 행동을 취할때, 학개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들이 노력할때 그들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킨다 (1:13). 성전건축은 9월 21일에 시작되었고 모든 공사는 5년도 걸리지 않아 완성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격려 (2:1-5)

주전 520년 10월 17일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선지자로 다시 스룹바벨 (총독) 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다. 초막절의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날에, 학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초막절은 이스라엘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기념하는 전통적인 축제이다. 그것은 또한 매해에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다음해의 수확물을 위한 비를 요청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이년도는, 가뭄으로 인해 축하할 것이 많이 없었다 (1:1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에 교정하시고 방향을 주신 것처럼, 그는 축복과 격려를 주신다.

열핏보아서는, 2:3 은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이 충분하지 않고 기준에 못미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성전공사에 실망하신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말씀은 솔로몬때의 성전을 기억하며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64년 전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거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때는 어렸을 때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두 성전구조 사이에는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날, 즉 그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라고 인식하셨다. 그는 성전모습에서 같은 결과를 바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솔로몬때처럼 그러한 세력이 없었고 또한 그때에 있었던 자원들도 없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위한 공급을 능가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4:19).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의 임재와 인정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신다 (학개 2:4-5).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2:4 에서 세번이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건 않하건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놀라운 결과들 (2:6-9)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되고 받아들여짐이 있을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2:6-9에 전능하신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일들을 묘사하신다. 그는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전에 하셨던것처럼 진동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9:16-19).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진동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뒤흔들어 놓으시며 (학개 2:7), 정부들과 권세자들이 그들의 재산으로 성전을 돕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성취하는데에 필요한 공급을 하신다. 그는 모든 은과 금 (2:8), 그리고 그의 공급은 무한하시다. 귀환한 포로들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되는 소식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신다 (2:9). 갈등이나, 전쟁, 분쟁이 단지 없는 것 보다도 이 평화는 복지와 건강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약속은 그가 새로운 성전에 거하실 때 새로운 평안을 가져온다. 이러한 확신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격려가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급하심에 의해 채워짐을 발견한다.

암시하는 것들과 취해야 할 행동들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학개의 가르침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헌신된 관계를 형성하시기 전에 단지 사람의 선한 행동에 보상하시고 악한 행동에 벌하신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학개의 말씀은 몇 세기 전에 맺었던 사랑의 충실한 언약과 봉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실패, 어려움을 이용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바램은 사람들이 우선할 것들을 게을리 하는데 있어서의 노여움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할 수 있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믿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쓰시지만, 항상 그의 주된 목적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이다. 관계성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위를 끌며, 당신이 그를 당신의 “첫사랑”으로 기억하기며 (요한 계시록 2:4), 또한 그가 부르신 것에 순종하고 봉사함으로 나타나는 당신의 헌신을 바라신다.

질문

1. 왜 학개 선지자는 반복해서 그의 말씀이 “만군의 주 (주인들 중의 주인)”에서 왔다고 했는가?
2. 지금은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새로운 것이 소개되었을 때 하는 흔한 불평이다. 당신은 새로운 성전은 첫번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혹시 그러한 불평을 하지는 않았는가?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놓지 않는것이 가능한가?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서 선택하는 각본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두는 경험을 한 것이 생각나는가?
- 하나님의 목적에 우선을 두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난 것인가?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일과 가정에서 오는 많은 요구들의 소동가운데에 이 질문을 생각해야한다: 당신은 이번주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한가지는 무엇인가?

[참고]

번역에 묻혀진 뜻들

다음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원어가 밝히는 영어에는 없는 몇가지 뜻이다.

- 2:15, 18에 학개는 히브리어 해켈, 즉 궁궐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묘사한다. 다른 곳에서는 (1:2, 4, 14, 2:3), 학개선지자는 히브리어 베이잇 즉 집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다. 이 구별은 특별히 1:4에서 그가 사람들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는데 두들어진다. 그들은 단지 풍부한 은신처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거처를 짓는것이다.
- 학개는 황량함을 성전이 “무너져있다” (1:4) 또는 땅위에 “가뭄” 이 (1:11) 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말을 쓰고있다. 그는 이 두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기본적인 히브리어를 쓰고있다.
- NIV 번역본은 “보화” (NASV) 라는 단어 대신에 “갓기를 갈망하는 것” 이라는 단어를 쓴다. 두가지 모두 옳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치나 미를 나타내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을 의미한다.ⁱ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하는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지으실수 없는가? 어떤 사람이 묻는다. 사람들이 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지으시면, 그러한 성전은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이 될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교제와 봉사의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갑자기 나타나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투자를 그곳에 하겠는가? 그들은 너무 경외하는 마음에 예배를 위해 그곳에 가까이 가기 조차 어려워할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서로간의 관계를 무척 열정적으로 원하셔서 사람들이 일에 참여하는것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스가랴 1-8 장은 선지자 학개가 활동했던 때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선지자 스가랴가 직접 기록한 부분이다. 스가랴 9-14 장은 앞서 1-8 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몇 가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점은 글의 구성과 문어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단원에서는 스가랴 1-8 장을 통해 유대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외치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 학개의 말씀이 포고귀환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시아에게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었다면, 스가랴의 말씀은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다.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포로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땅으로 귀환시키시며, 그들의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소망을 의심하게 되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그런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회복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 제 4 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
- 제 5 과 10 가지 격려의 말

<p>[제 4 과]</p>	<p>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p>
<p>핵심본문 스가랴 1:1-17</p> <p>배경 스가랴 1 장</p>	<p>학습주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p> <p>탐구질문: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p> <p>학습목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와 회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을 인도한다.</p>

들어가기

유대인들이 포로귀환을 할 때 하나님은 마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면 항상 부모님께 듣는 말이 있다. 맞는 너보다 때리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난 이런 사랑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으로 비꼬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럴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제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녀들에게 똑 같은 소리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아이들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훈계를 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때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아이들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다. 스가랴의 예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단련시키던 하나님의 훈련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보다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본문해설

스가랴의 등장 (1:1)

스가랴 1:1에서 스가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소개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는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제 전했는지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스 1:1, 7; 7:1). 스가랴가 한 첫 말씀은 다리오왕 제이년 여덟째 달이었고, 이는 학개가 마지막 두 예언할 때쯤인, B.C. 520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이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제국의 왕이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에게 예언하였다 (에스라 4:42-5:1).

스가랴의 예언을 하기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에 패배하게 된다 (B.C. 580).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추방당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유다가 더 이상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 선택하여 이집트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땅을 주시고 국가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가지게 되었고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국가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였었다. 하지만 B.C. 587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셨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믿었다. 고대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조상들이 썼던 이동 가능한 신전) 처음 만들었고, 구름이 성막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있음을 알고 그곳에 거주를 정하였다(출애굽 40:34).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계셨지만, B.C.587년에 하나님도 떠났다.

유대인들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의 왕인 키로스는 유대인과 그 외의 다른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낸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즉시 기쁨에 넘치지는 않았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아직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권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성전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꼈다.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였고 왜 그들이 그런 참상을 겪었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필요했다. 그들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다.

회개로 부르심 (11:2-6)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주면서 부정적인 톤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나셨다(스가랴 1:2). 하지만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기회를 찾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화를 내고 싶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로 돌아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다 (1:3).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 이었다.

유대인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이 뜻하는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예를 따르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다.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를 통해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었다. 그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명령이었다 (1:4). 그들의 선조들은 이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화를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다. 그들의 선조들은 그들의 악한행위를 중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게 된 이유였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였다. 선조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탓이 아니었다.

지금은 옛날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들에게 남아있게 하였다 (1:5-6a).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려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다!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고, 그들의 고통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1:5-6b).

말을 타는 정찰병들에 대한 환상 (1:7-17)

몇 달 뒤인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24 일 또는 B.C. 519년 2월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밤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1:8). 밤이라는 시간은 (4:1 에도, 마치 자던 사람을 깨우듯이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장면에도 계속된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세상에 알리는 동안 존재하는 어둠을 상징한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1:11에 하나님의 천사로 나와있다)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백마로 둘러싸여 있었다(1:8). 그 때 다른 형상이 나타났다. 스가랴는 그를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불렀다(1:9). 이 천사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색깔이 있는 말들이란 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상해 보이나, 이들 색깔은 실제로 보통 말들의 색깔이다. 화석류는 8피트 높이로 자라는 상록 나무로, 비밀스런 장소를 감추는데 이상적일 것이다. 이 말들이 (언급되었지는 않지만,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 땅을 조사하라고 보내졌을 때, 감추어진 계곡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을 것이다.

그들은 주의 천사에게 온 세상이 평안했다고 보고하였다(1:11) 이것은 좋은 소식으로 보이지만 주께 슬픔으로 울부짖는 주의 천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 보였다. 분명히 주의 천사는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외치는 소리를 원했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압제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국에 크게 외치는 것을 바랬던 것이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칠십 년이나 되었습니다."(1:12)라는 탄원으로 그 동안 포로생활로 유대인에게 어려움이 지속되었음을 알렸다.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실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70년이라는 포로기간이란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이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그 땅은 안식과 휴식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열 번의 안식일 주기는 70년이다) 포로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리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또한 70년은 한 세대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때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의 슬픔에 대해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을 주었다(1:13). 이 천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1:14-17). 예언을 위해 부름 받은 스가랴의 사명은 구원과 회복이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주의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1:14).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유대인들에게 조금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앞부분에서는 “심히 진노”하였다고 했지만 1:2). 하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보다 다른 나라에 더 화가 나 있었다 (1:15). 이 말은 앞부분에 나타난 선조들을 향한 주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없애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향한 주의 진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벌을 똑같이 내리셨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그의 “집”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약속하셨다. 덧붙여 예루살렘 전체에 측량의 줄을 다시 그음으로 도시 전체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1:16). 측량의 줄은 도시 벽을 정하기 위해 건축에 쓰이는 줄이었다. 그것을 굿는 것은 건축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었다. 측량의 줄이 그어지면 공사는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완벽한 회복은 진행중인 것이었다. 유대인이 받았던 고난은 주가 그들에게 다시 주실 위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시와 그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시 그들을 선택하고, 다시 구원하고, 다시 그들을 보물처럼 여기실 것이었다 (1:17).

포로생활로 힘든 동안 사람들은 후회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을 느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도시와 성전에서 떠난 것을 알았다. 스가랴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지적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벌은 포로생활에서 받은 것으로, 그들의 선조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적용 및 실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길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다. 그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더 이상 억압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에 그의 진노는 유대인을 억누르는 이방국가에게로 향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종속되어있지 않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책임 또한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셨다.

몇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죄와 죄의 결과는 그런 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보지 못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일인 것이다.

질문

1.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가? 어떻게 구약의 진노하신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을 연관시키겠는가?
2.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1:6)
3. 하나님께 한탄하는 천사와 같이 한탄함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생활과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포로생활은 유대인의 삶에서 엄청난 재난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여러 재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훈련일 수 있는가?
5.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육체적으로 힘들어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참고]

공동체 회개의식

구약에서 다루어지는 죄와 벌을 보면 개인에게보다 공동체나 지역사회에 더 무게를 싣고 있음을 본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구약은 공동체 사회였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공동으로 죄를 뉘우쳐야만 했다. 이와 비슷하게 그들의 벌과(예루살렘의 파멸, 그들의 나라를 빼앗김, 성전의 붕괴..등) 죄도 자연히 공동의 몫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공동체의 회개를 위한 기회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자신들이 한 몸이고 한 교회라는 믿을 만큼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p>[제 5 과]</p>	<p>10 가지 격려의 말</p>
<p>핵심본문 스가랴 8 장</p> <p>배경 스가랴 8 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공부한다.</p>

들어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과거 명성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다른 이방나라들을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4살짜리 딸에게 많은 약속을 한다. 그 약속들 중에 일부는 조건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대화를 매일 저녁 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게?” “굉장히, 굉장히” “내가 얼마나 오래 저를 사랑하게?” “영원히, 언제나”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딸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려 한다. 하지만 딸에게 다른 약속도 한다. 예를 들면, 딸이 닭고기를 먹으면 젤리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다. 자기가 할 부분을 하면 나도 약속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 또는 메시지는 어떤 것은 무조건적이고 어떤 것은 조건이 있다.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조건 없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뭔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루살렘의 미래와 부흥은 그 10가지 말씀들에 달려있다. 때때로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불렸다. 예루살렘 시가지는 유대인의 심장과 같은 도시였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였고 그들의 왕들의 고향이었다. 또한, 그들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므로 하나님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4과를 참조). 예루살렘의 미래와 회복에 중심이 맞추어진 말씀은 그들에게 자신의 회복이 그들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유대인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 믿음이 이방나라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스가랴 8장에 있는 열 가지 말씀은 앞의 7장에 걸쳐 예언한 메시지의 중요한 테마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말씀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청중으로 하여금 각 말씀이 스가랴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한다.

본문해설

예루살렘의 회복 (8:1-8)

첫 번째 말씀은 (8:1-2) 스가랴의 첫 환상에도 말씀하신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감정을 보여준다 (스가랴 1:14). 시온을 향한 “사랑의 질투” 라는 표현에서 당연히 자신의 소유인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다른 지배자 밑에 있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길 원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채, 두 번째 말씀(스가랴 1:3)에서 그 마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실 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사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때를 보면, 새 성전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성전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에 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처럼 그 도시의 성격도 거룩하게 바뀔다는 것이었다. “성실한 도성”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신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의 선조가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스가랴의 세대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만이 희망이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름,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도시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회복된 도시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번영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만약 남녀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다면, 그런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가장 만족해할 만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노인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있다면, 식량의 문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안전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해 여전히 약간의 의심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말씀(8:6)에서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NIV에서 번역된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은 “불가능”하게 생각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다시 번영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다섯 번째 말씀(8:7-8)에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백성을 채울 것을 약속한다. 비록 B.C. 587년 가을에 백성들 사이에 추방과 분열이 있었지만, 도시의 인구는 전의 크기보다 아주 소량만이 줄어들었다. 백성들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 하시겠다는 약속 다시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흠여짐(7:14)을 막으시고 주의 성스러운 도시로 다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이 다섯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다.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겪는 어려움 (8:9-13)

다른 말씀보다 더 긴 스가랴 8:9-13의 여섯 번째 말씀은 이러한 교훈이 담겨있다. 다섯 번째 말씀까지는 유대인의 고향으로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섯 번째 말씀은 땅의 회복과 의욕이 솟게 하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는 포로생활을 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전의 기초는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완공되고 있었다 (8:9). 성전 재건축의 첫 단계는 청소와 기초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사였다. 준비는 끝났고 건물이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기초공사가 마쳤을 때 드렸던 제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그 날 스가랴가 언급했던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 (8:9)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를 강조한 학개서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학개 2:10-23). “힘을 내어라” (스가랴 8:9)라는 스가랴의 이 말씀 때문에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다

성전 재건축이라는 전환점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8:10).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거두는 작물은 없고, 페르시아 통치자들에게 받치는 세금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금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내부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역전 시키는 시간이 온 것이다 (8:11). 경제적인 허덕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자 서로 싸우는 것도 멈췄고, 그들의 관심을 성전 재건축으로 돌리면서 그들의 어려움은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땅과 작물들을 허락하심으로 농업과 경제적인 번영을 회복시켜 주셨다 (8:12).

회복은 이방나라 사이에서 저주받던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면서 계속된다 (8:13A). 사람들은 그냥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들까지 축복할 수 있도록 “구원” 해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12:2). 같은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저주의 표본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시대에 유대인을 넘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었다.

여섯 번째 말씀은 “힘을 내어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말로 끝났다 (8:13b; 8:9).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축복 주시기 위해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이 말씀은 상기되어야 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미래 (8:14-23)

일곱 번째 말씀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을 훈련 시키기 위한 결심을 했었다고 말했다 (8:14).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어 살게 할 것을 약속했다 (8:15). “작정하였다” 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고자 할 때 표현되는 단어였다. 하지만 새 날이 열리고 스가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 결정이 발표됨으로써 사실로 들어났는데, 그 결정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한 것이었다 (8:15).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곱 번째 말씀에는 원가가 더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이 새로운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과 책임을 몇 가지 요구하셨다. 각 요구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간의 인간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첫 두 요구는 다른 이들에게 특히 법정에서 진실 하라고 함으로써 외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주셨다 (8:16). 두 번째는 사람들의 내면의 성품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말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8:17).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덟 번째 말씀은 (8:18-19) 모든 금식이 축제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뉘우침과 회개를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리라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어려움과 슬픔의 금식은 기쁨의 축제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여덟 번째 말씀에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만 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8:19b). 일곱 번째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바가 여기에도 다시 한번 언급된다.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의 축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들의 책임을 감당 해야 한다.

아홉 번째와(8:20-22) 열 번째 말씀에서는(8:23) 예루살렘의 회복이 다른 나라들을 번영하게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8:20). 말씀은 더 많은 나라에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그를 찾기를 원할 것이었다 (8:21-22).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도 유대인들과 함께 오기를 원했다 (8:23).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열 명이” 라는 것에서 열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모인다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들의 부와 명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과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심을 약속하셨다. 또한 도시가 안전한 장소로 되고 경제적인 부의 장소가 됨으로써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다. 예루살렘을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더불어 전세계에 새로운 도시로 세워지게 되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했고 변해야 했다. 오직 성실하고 평화롭게 회복된 공동체만이 진정한 회복이었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

적용 및 실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께 선택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스가랴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을 끝내고 유대인들을 번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한 것을 본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감을 깨닫는 것과 뉘우침이 필요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만 회복시켜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질문

1.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계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다시 회복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 하나님은 공동체에 진리와 평화가 없는 것을 싫어하신다 (8:14-18).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진실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3.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다른 나라에 축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였는데, 이 약속은 한참 후,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왜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참고]

예언의 성취?

예루살렘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는가? 수년 동안 이러한 예언이 있었고 흩어졌던 많은 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원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에 실현되기를 여전히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의 눈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예언을 생각하자면 그들의 예언에 대한 성취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성전에서 살고 있었지만 기독교인 우리는 각자의 삶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속에 함께하신다고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비록 예전에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러 나라들에 계신다. 또한 세계각처의 믿는 이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인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있으며, 이는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식의 날과 축제의 날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종종 하였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는 자신과 함께 있으면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금식하는 것이 다시 필요해졌다 (마태 9:14-15; 마가 2:18-20; 누가 5:33-35).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한 때와 축제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 달력에 따라 일반 달력에는 없는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 예를 들어, 사순절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과 부활절 사이의 40일간)은 금식기간이다. 사순절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데 중심을 두고 회개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금식을 한다. 하지만 부활절기간이 되면 금식은 끝나고 부활절기간 일주일 동안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교회에서 금식과 축제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느헤미야는 기원전 5 세기에 페르시아 왕의 궁정 안에서 일하던 유대인이었다. 이 책은 (느헤미야) 그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정부에서 파송된 대사로서, 유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의 영감을 받은 자로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유대 공동체 자체를 재건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책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회고와 가족 이야기, 칙령, 그리고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유대 랍비들과 히브리 문서 학자들은 (맛소레테 Massorettes)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한 권으로 취급했다. 영향력 있던 기독교 지도자인 오리겐 (A.D. 3 세기) 이 처음으로 이것을 두 개의 책으로 나눈 사람이다. 제롬 (그의 라틴역에서) 은 이 책의 이름을 주요 인물인 느헤미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두 개의 책으로 나눈 최초의 히브리 성경은 A.D. 1448 년에 나왔다. 이 두 책의 통일성은 제사장이었던 에스라(458 B. C.)와 평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445 B. C.) 가 함께 사역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성경 번역학자들은 이 책들은 또한 역대지 상,하 를 포함하는 더욱 큰 묶음으로 속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 두개에 대한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것들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상,하) 중의 하나는 예언자적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한다.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을 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다른 역사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대체적으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어떤 제사장 그룹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제사장적 이야기로 함께 묶었을 것이라고 믿는 반면, 이 책들은 역대지 상,하와 별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이지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독자는 이 책들을 오늘날 존재하는 대로 연속적인 역사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느헤미야에 관련된 과목들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주변의 성곽을 재건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팅 했던 느헤미야의 지도자적 자질들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의 전략적 계획은 모두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다.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제 6 과	성경적 관점으로 시작	느헤미야 1
제 7 과	신중한 계획과 착수	느헤미야 2
제 8 과	비판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느헤미야 3:1-12; 4:1-6
제 9 과	완전하게 행동하라	느헤미야 5:1-19
제 10 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목	느헤미야 7:73b; 8:1-4a, 9-18
제 11 과	하나님께 감사	느헤미야 12:27-43

<p>[제 6 과]</p>	<p>일을 처리하기</p>
<p>핵심본문 느헤미야 1 장</p> <p>배경 느헤미야 1 장</p>	<p>학습주제 영적인 조명을 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p> <p>탐구질문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들과 같은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p> <p>학습목표 유다 나라의 고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설명하고 오늘날 내가 기도로서 반응해야 할 상황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들어가기

어떠한 중요한 업무를 접하든지간에, 우리는 좋은 시작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영적인 사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작은 항상 기도에 헌신하는 일이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작들을 접하게 된다. Head Start 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주는 전국적 프로그램이다. 1965년에 설립되어서 매년 거의 1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는 시도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의 큰 출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자동차 배터리가 죽었거나 혹은 거의 죽었을 때 다시 그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커다란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들은 먼저 출발을 하거나 출발 신호총을 쏘기 전에 나가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좋지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평온한 삶을 깨트려 놓았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일 그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필요에 대한 이상적인 반응과 지도자의 훌륭한 자질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인도하는 가에 대한 놀라운 예를 제공해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첫번째는 느헤미야의 최초의 반응이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초의 반응 중에서 그는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시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작이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관망부터 시작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그 이상 좋은 시작은 없다.

우리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을 종종 한다. 때때로 우리는 시작을 잘못된 방법이나 혹은 잘못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질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문해설

느헤미야의 중요한 위치 (1:1, 11b)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평온케 하셨다”이다. (나훔은 그 이름의 생략형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바빌론이 유대인들 중 유력 인사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약 594-586 B. C.). 페르시아의 고레스 (Cyrus) 왕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무너뜨렸을 때,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고레스 왕은 바빌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역대하 36:22-23),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느헤미야처럼 정부의 관료로서 일하기도 했다.

히브리 용어로 느헤미야의 “말(the words)” (느 1:1)을 강조한 것은 말, 행동,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책의 일부는 느헤미야가 일인칭으로 쓴 회고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느 1-7 장, 12:31-13:31). 이 책은 또한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 본 제 3자가 해설하는 부분도 있다 (8:1-12:30).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이 역대상, 하에 기록된 연속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단원 개요를 참조하라.

“이십년” (1:1)은 한 왕의 통치에 대한 연대기이다. 느헤미야 본문은 2장까지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점이 이상하게 보인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본래 느헤미야 1장은 에스라-느헤미야 합본에서는 첫 장이 아니라 단지 그 다음 장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원 개요를 참조하라). 아르닥사스(465-424 B. C.)왕이 에스라서(에스라 7:1, 7)에서 마지막 왕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시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르닥사스 왕 20년은 기원전 445년일 것이다.

아르닥사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느헤미야의 역할은 오늘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였다. 유대와 그리스의 자료들에 따르면 이 직업은 매우 귀하고 높은 지위였다. 공식적으로 느헤미야는 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왕이 즐기는 특정한 술을 매일 선택했다. 게다가 그는 왕을 독살시키려는 음모를 막기위해서 먼저 그 술을 시음했다. 이러한 직분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유쾌한 성격과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또한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술을 맡은 자는 계속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그의 주인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어떤 인간적인 경험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추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우가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1950년 6.25가 터졌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건들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2001년 9월 11일 미국시간으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우리의 비행기가 한 대학교의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샌 안토니오에 도착했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종류의 사건을 경험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수산 도성” (1:1)에 있었을 때였다. 수산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150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왕들이 통치하던 당시의 수도였다. 다리우스 (522-486 B.C.)는 수산 도성을 겨울을 지내는 곳으로 건설했다. 크세르크세스(아닥사스다)가 여기에서 겨울을 보냈다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슬월” (1:1)은 우리의 11월-12월 (겨울 기간)이다.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참여 (1:2-4)

이 구절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낳는다. “하나니” (1:2)는 느헤미야의 형제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 (삼촌), 혹은 단순히 동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느헤미야는 확실히 그를 형제처럼 신뢰했다, 왜냐하면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긴다(7:2). 만일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제였다면 그는(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니는 어떻게 유다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 그는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유다에 돌아갔던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최근의 예루살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를 유다에 보낸 것인가? 만일 느헤미야가 그를 보낸 것이라면 2-3 절은 공식적인 보고로 볼 수 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받은 소식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그 신앙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1:3)라는 말은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나타낸다. 그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의 문화적 개념은 한 가지 이유로 중심도시 주변에 벽을 쌓았는데 그것은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벽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백여년 전에 바빌론 군사가 느부갓네살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궁극에는 기원전 586년에 그 도성을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바빌론인들은

여러 개의 성문들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강한 반응은 그가 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에스라 4:7-23 절에 묘사된 시나리오이다. 에스라는 기원전 458 년에 유다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지역 지도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그들의 감정 섞인 보고를 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아마도 그때까지 완공된 일도 되돌려 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건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로부터 소식을 듣기 바로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러한 더욱 최근의 보고가 느헤미야의 강하고 통렬한 반응을 더욱 잘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절망적인 소식에 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그는 먼저 자리에 주저 앉아 그의 충격과 슬픔을 복받쳐 오르는 눈물로 가라 앉혔다 (4 절). 그는 또한 그의 슬픔을 그가 속한 문화적 형태로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 행동가였던 느헤미야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먼저 맡김으로써 그 고통스러운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을 시작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는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을 가지고 갔다.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청구 (1:5-11a)

의심할 것 없이 그 다음 몇 달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구절 속에 포함된 기도의 내용은 그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한 예이다. 그 기도예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그가 살던 당시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간구를 하곤 했던 전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했던 용어와 문장은 또한 이 시기의 다른 책들(다니엘과 에스라와 같은)에서도 발견된다.

이 기도예 대한 또 하나의 놀랄만한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구절들을 에코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일들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모범적인 영적인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지속적인 기도와 성경 연구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기도는 또한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다.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듣고 보시기를 간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아주시기를 간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요청한 것이었다 (느 1:6-11).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 (출 2:24)을 “기억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백성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두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중재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느 1:5).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역사적, 신학적 맥락 속에서 현재의 필요를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를 맺으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실하시며 그 계약에 충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 (1:5)은 책임을 다하며 살기로 맹세한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이다.

느헤미야 기도의 두번째 근거는 이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특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6).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의 죄된 나라와 동일시 했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과 그의 가족의 잘못을 고백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 징계하신 벌을 받다 마땅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불순종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았다(1:8-9).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과 바빌론의 노예생활 (1:10)로부터 “구속” (자유케 함, 혹은 해방시킴) 해주셨다. 하나님에 의해 자유케 되어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간구에 매우 경의를 표한다 (1:11a).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위대한 것을 구하지 않았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과 함께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다, 왜냐하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용 및 실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에 태클을 거는 나를 용서해주기 바란다. 첫 번째는 이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는 모든 영적인 일의 극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전주곡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일의 모든 면에 대한 시작이다. 영적인 일은 기도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한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단 말인가? 왜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고 혹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기도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는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고 이러한 간구를 극에 다르게 하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 당신께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해주실 거죠? 당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알기 전에 그는 페르시아 관료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일까? 당신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현재 당신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2. 지난 몇 년동안 당신이 들었던 가장 괴로웠던 소식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안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왔는가, 아니면 최후에 왔는가?
3. 본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을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고 실재로 성경 말씀과 표현을 인용하거나 포함하고 있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당신의 기도에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참고]

성벽

느헤미야의 시대에 벽은 성을 지켜주고 어떤 도시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의 존재는 성과 마을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는 것이었다 (삼상 6:18; 겔 38:11). 성벽의 최초의 고고학적 유물은 여리고 성이다 (7000 B. C.).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로마제국 시기까지 (1 A.D.) 성벽은 성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구약 성경 시대부터 기원된 팔레스틴에 있던 어떤 성벽들은 높이가 50 피트가 넘는 것들이 있었다. 적이 접근할 때,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꾀했다.

물론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곳이나 혹은 성문이었다. 성벽들은 돌로 만들었지만 문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로 공격하면 쉽게 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문들은 쇠나 나무로 같이 만들었다. 또한 탑을 성문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적들에게 화살 세례를 부을 수 있도록 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가?

최근에 우리 교회의 한 아버지가 동남 아시아에 가서 선교 팀으로 봉사했다. 그는 직업이 디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농부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는 법과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교 지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어린 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었다. 그 아들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당신은 이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줄 것인가, 혹은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

<p>[제 7 과]</p>	<p>신중한 계획과 착수</p>
<p>핵심본문 느헤미야 2 장</p> <p>배경 느헤미야 2 장</p>	<p>학습주제 일의 진보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의지하면서 주의 깊게 짜여진 계획을 실행할 때 일어날 수 있다.</p> <p>탐구질문 다음 중 어느 것을 우리는 가장 게을리 하는가 -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 혹은 실행하는 것?</p> <p>학습목표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에 실패하는 상황들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비교해본다.</p>

들어가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동역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계획) 언제 해야 할지 (실행)를 아는 것에 의지하신다.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들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하자마자 결정된 실행과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느리다. 그들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원하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다 각도로 문제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장점과 약점이 있다. 내가 볼 때(저자) 느헤미야는 보다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리더 스타일인 것 같다.

나에게 Tennessee Baptist Convention 에서 스턴으로 일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방면에 은사가 많은 것 같다.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나와 함께 South Main 에서 교육목사와 행정목사로서 섬겼다. 그는 느헤미야와 같은 스타일이다. 그가 와서 처음에 우리와 일하기 시작할 때 그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들을 우리의 사역자 계획안에 내어 놓으며 그것들을 즉시로 실행하기를 원했다. 나는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짜고 점검해보자고 반응하곤 했었다. “그것을 심사숙고 해보자” 라는 말을 그가 먼저 했는지, 내가 먼저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의 경향을 파악한 그는 우리의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놓은 뒤 “심사숙고 해보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는 고맙게도 나의 리더쉽 경향에 순응해 주었고, 나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좋은 지도자는 신중한 계획과 실행에 옮기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느헤미야가 신중한 계획과 실행에 옮기는 일의 적절한 균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계획을 짰고 (느 2:1-5);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겼고 (느 2:6-10); 이루어져야 할 일을 분석했고 (2:11-16); 일의 시작을 공포했다 (2:17-20).

본문해설

신중하게 계획 - 마음을 나눔 (2:1-5)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 (1:11).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왕은 아닥사스다 였는데 (465-424 B.C.), 아하수제로(Xerxes) 왕의 아들이다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왕). 아닥사스다는 그의 아버지가 궁정 반란으로 암살을 당했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그는 잠정적으로 칼리아스 (Callias) 평화협정 (449 B.C.)을 맺어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리스와의 문제를 진정시켰다. 결국 이집트가 그의 주된 라이벌로 남게 되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위치는 이집트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중요했다.

유다에서 온 방문객들이 수사에 온 지 4개월이 지났다. “니산” 월 (2:1)은 우리의 4~5월 사이에 해당 된다. 사실 우리는 왕의 통치기간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4 달 동안 왕에게 처음으로 나아간 것은 아닐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어떻게 왕에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짜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않은” (2:2)것은 그의 애도, 슬픔, 그리고 오랜 동안의 금식의 결과였다. 또 한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슬픈 심정을 의도적으로 나타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나 혹은 왕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매우 황공” 하였다 (2:2).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갈 때 매우 조심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조차 들먹이기 꺼려했다. 그 대신에 그는 그의 조상들과 그 도시의 깊은 연관성을 말했다 (2:3). 이것은 왕으로부터 어떤 동정심을 유발시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대답할 것을 몇 번이고 연습했을 것이다. 그는 얼른 기도했다 (2:4). 그리고나서 그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대담한 요구를 했다. 그는 왕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실행 -왕의 허락을 구함 (2:6-10)

여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2:6) 이 것이 좀더 사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내포한다. 페르시아의 여자들은 왕궁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여왕이 큰 회의나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공적인 회의에서 내어 놓은 대담한 요구는 이제 충분히 검토되었고 좀더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왕은 그러한 여행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필요가 있었다. 느헤미야는 왕이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했다 (2:6).

본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왕의 친서는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이 보장된 건축 허가서였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승인된 업무에 대해서 지역 관리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프라데스 서쪽지역” (2:7)은 문자적으로 강 건너편이라는 뜻인데, 유다가 위치해 있었던 페르시아 관할구의 공식명칭이다. 다리우스는 (522-486 B.C.)는 그의 엄청난 크기의 제국을 20개의 관할구로 나누어서 사트라피로 불렀다. 각각의 관할구는 왕이 임명한 사트라프가 다스렸다. 다리우스는 이 사트라피를 더 나누어서 그 지방, 혹은 그 민족의 인물 가운데 총독을 뽑아 관료로 삼았다.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과 인접한 산악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은 또한 팔레스틴, 페니키아, 싸이프러스를 포함한 영역이었다.

느헤미야는 또한 성벽을 지을 재료를 요청했다 (2:8). 목재는 “왕실 숲”으로부터 들여 오곤 했었는데, 아마도 레바논에 있는 전설적인 수풀지역을 일컫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시대 이후 (960 B.C.), 그리고 최근의 바빌론 귀향 이후에도(스 3:7) 주된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를 레바논에서 들여 왔었다.

목재는 몇 가지 이유로 필요했다. “성채” (느 2:8)는 성전 북쪽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역이었다. 그것은 성전의 공격받기 쉬운 지역을 보호해 주었다. 성벽을 위한 목재는 성벽 방어 탑과 성문들의 수리나 건축에 필요 되었다. 느헤미야는 준비의 가치를 알았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느 2:8). 아닥사스다는 왕의 친서와 함께 호위 부대를 제공해주었다 (2:9).

느헤미야의 여행은 지방 관리들의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켰다 (2:10).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느 6:10-14). 그리고 그의 딸들 중의 한 명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을 했다 (13:28). 아마도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도 또한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6:17-19; 13:4).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다.

신중하게 계획하라 필요사항을 조사하라 (2:11-16)

느헤미야와 그의 수행원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약 900 마일을 여행하는 것은 4달 정도가 걸렸다. 시차 때문에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던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휴식이 필요했다 (2:11).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경솔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옳은 정보를 주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성벽 주위를 훑어보며 조사를 했다 (2:12). 그는 이 것을 소수의 수행원을 데리고 밤에 거행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주의 했다.

느헤미야 책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지형학적 묘사를 제공하는 세 개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장들은 성벽의 조사 (2:13-16); 실재 회복, 혹은 성벽의 재건 (3:1-32); 완공된 성벽의 봉헌 (12:27-39)과 관련된 것이다. 비록 이 문장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문들이 남아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루살렘의 크기인데, 이는 느헤미야 시대에 서쪽 성벽의 위치에 달려있다.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715-687 B.C.)에 의해 통합된 서부 외곽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성의 크기보다 더욱 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솔로몬 성은 다윗 성의 동부 지역만 포함시키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 있는 그 성의 서쪽 지역에서 야간 조사를 시작했다. 그 우리는 남쪽 방향으로,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거름 문”은 그 성의 최 남단에 있었다.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 버렸다. 느헤미야와 그 수행원들은 이제 “샘 문” (2:14)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다. 이 입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활 용수를 “왕의 연못”에서 그 성 안으로 들여 왔다 (2:14).

이 지역에서 느헤미야와 일행은 더욱 큰 어려움을 맞았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을 때, 이 부분의 성벽은 기드론 골짜기를 향한 가파른 언덕 때문에 거의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 성벽에 기대어 지어진 집에서 나온 부스러기와 성벽의 부스러기가 그 계곡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 길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느헤미야는 오던 길을 다시 지나서 그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왔다 (2:5). 이 짧은 여행은 성 주의 전체를 돌아본 것은 아니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들어왔었고, 주간에 북쪽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적당한 때가 오면 그가 온 목적을 공고할 것이다. 그는 아직 그의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 일반 지도자들, 기업 리더들, 공무원들, 그리고 그 마을의 유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포하지 않았다.

일을 착수 백성들을 고무시킴 (2:17-20)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동기부여 기술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의식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혹은 수리를 할 계획을 공포했다. 우선 그는 그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한 그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직시했다 (2:17과 1:3절을 비교하라). 은사가 있는 리더들은 해야 될 수고를 줄여서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따르도록 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수모” (2:17)는 그들이 바빌론 유수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를 가리킨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포로기 이후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상징으로서 보았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이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거나 비관하게 하는 현실주의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힘찬 기운을 일으켰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2:18),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시켰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언급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왕의 허락마저 통치하는 전능하심을 즐겁게 만들었다. 느헤미야는 그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초청했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즉각적이었듯이 반대도 또한 즉각적이었다. 본문은 벌써 세 명 중 두 명의 리더들이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여기에 나오는 새 이름은 “아랍 사람 게셈” (2:19)이다. 구약 성경 안팎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의 남부와 동부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자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비웃음꺼리로 만듦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은 느헤미야와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는 다른 무리들을 싸잡아서 비난했다. 이 전략은 이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에스라 4:12-16).

느헤미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그의 목표를 재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시켰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한 최고의 것을 갈망했다. 그 반대자들은 그들이 그 도시 복지의 진정한 이해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적용 및 실천

전도서 3:1-8절은 인간 존재의 일반적인 활동들을 나타내는 14가지의 양극들, 혹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양극 중의 하나는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전 3:7)이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가치있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방법에 이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 계획할 때와 일을 할 때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행동은 취하지 않고 계획만 짜는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 신중한 계획과 의미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위대한 모델이다. 그는 신중한 생각과 때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는 최고의 균형을 보여 주었다.

질문

1. 당신은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축제의 시기에 왕의 관심을 끌고자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설명에 거리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과 적당한 동기부여 사이를 구분짓는 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만일 왕의 반응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느 2:4-6),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가 과업에 대한 좀더 완전한 이해가 필요해서였는가? 아니면 그의 적대자들에게 그의 과업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였는가? 비전과 목표를 나누는데 있어서 영적인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4. 계획을 세우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신의 경향은 어떤 쪽인가?

[참고]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에 당신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당신 자신에 의해 일어났었던 중요한 행동을 생각해보라. 만일 있다면 다음 가능성 중 어느 것이 그 행동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본다.
-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 정보를 폭넓게 나눔을 통해 목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한다
-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에서부터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이르는데까지 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 과업의 분량과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솔직한 평가
-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 것

<p>[제 8 과]</p>	<p>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p>
<p>핵심본문 느헤미야 3:1-12; 4:1-6</p> <p>배경 느헤미야 3--4 장</p>	<p>학습주제 비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중요한 목표를 향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p> <p>탐구질문 만일 오늘날 당신이 한 마디의 비판을 듣고 100 마디의 칭찬을 듣는다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겠는가?</p> <p>학습목표 비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p>

들어가기

비판을 듣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예상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성공 여부는 비판의 실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그 과정은 1989년,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 이유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장점과 단점들을 몇 가지 참고 자료들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세웠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도 조직되었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는 예배당을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어느 주일 아침 이러한 모든 계획을 마지막으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 내가 뒷 문으로 예배당으로 막 들어가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나를 불렀다. 그 분은 우리 교회 집사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동차 판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나의 좋은 친구 중의 한 명이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로타리 클럽이 모일 때 같은 테이블에 앉곤 했었다. 그의 질문은 매주 적나라한 것이었다. “예배당을 옮기는 이 계획 뒤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만일 그가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다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집사님을 사랑했고 나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는 또한 예배당을 옮기는 그 프로젝트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고 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예배당 옮기는 일이 마쳐진 후, 그는 당연히 우리의 새로운 장소를 매우 좋아했다. 그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는 다른 비판을 들었지만,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가 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는 그 일을 추진했다.

어떤 영적인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비판에 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비판들이나 적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하는 일을 방해 하려고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 중 몇 가지를 드러내 준다.

본문해설

당신의 일을 지연하는 것 (3:1-2)

이번 공부는 성벽과 성문을 수선하는 실재 일을 묘사하고 있는 느헤미야 책의 3개 장들 중 두 개의 장을 (또 하나의 장은 6장이다)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다시 느헤미야의 조직적인 기술을

엇볼 수 있다. 공사는 41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각각의 할당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 (8 가지 공사 팀. 3:1-5); 서쪽 성벽 (10가지 공사 팀. 3:6-13); 남쪽 첨단 (두 가지 공사 팀. 3:14-15); 그리고 동쪽 성벽 (21가지 공사 팀. 3:16-32). 많은 일을 요구하는 지역인 완전 파괴된 지역들은 북쪽 성벽과 동쪽 비탈길을 따라 있는 성벽이었다.

비록 모든 성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본문은 10개의 성문들과 성벽의 특정 부분이나 혹은 성벽을 따라 있는 18개의 다른 보수 공사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성벽 공사는 보통 한 성문에서 다음 성문까지 이어서 연속적으로 할당 되었다.

공사에 대한 본문의 요약은 북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양문” (3:1)은 그 도시의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문이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물들을 몰고 왔다. 수 백년 후에 예수님은 이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요 5:2). 제사장들이 성전 건물 근처에 있는 이 공사를 할당 받았다. 그들의 할당된 영역에 있는 두 개의 망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북쪽은 예루살렘이 가장 취약한 방향이었다. 망대들은 또한 성전 지역의 안전을 제공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공사를 “바쳤고(dedicated),” “봉헌했다(dedicated).” (영문으로는 같은 단어가 두번 반복됨). 느헤미야는 나중에 완성된 성벽 프로젝트에 대한 공들인 봉헌을 통솔했다 (12:27-43). 공사를 착수 했을 때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의 기공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 공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과 함께 그것을 구별해서 드렸다. “엘리아십” (3:1)이 나중에 있는 대대적인 봉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산발랏과의 관계는 결국 느헤미야와 같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13:28).

당신의 목표를 이룰 시키는 것 (3:3-12)

정치하는 사람이 반대 세력이 내놓는 고발이나 험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가, 혹은 그녀가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귀향시켜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적대자들이 방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인 자세로 침착하게 일을 진행시켰다. 이 구절들은 그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단일한 과업 -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일하도록 했다.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기용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지도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 각각의 공사 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이 프로젝트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들) 밖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것이었다. 예루살렘과 다른 행정 구역에서(3:7) 온 관료들 (“책임자(ruler)” 3:9, 12)이 참여했다. “구역”은 (3:9, 12) 한 지방에 속한 관할 구역이었다. 인부들은 시골의 농부들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기술자들을 아울렀다. “세공장이”와 “항품 제조업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술자들이었다 (3:8). 가족들도 함께 일했다. 살룸의 딸에 대한 언급 (3:12)은 그가 그 공사를 도울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비추주고 있다. 아무도 강요당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3:5).

“물고기 문” (3:3)은 그 도시의 북동쪽 모서리에 있었다. 그 문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생선의 통로가 되는 곳이었다. “옛 문” (3:6)은 그 도시의 구 영역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확장된 서부 외곽지역으로 가는 통로였다. 도시의 서쪽에 있는 “넓은 벽” (3:8)은 벽의 두께가 두껍거나 혹은 벽이 싸고 있는 영역이 넓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풀무 망대” (3:11)는 빵을 굽거나 혹은 그릇을 만드는 상업적으로 사용된 망대를 일컫는다. 3장의 남은 부분은 서쪽 영역으로 계속해 내려간 후 동쪽 비탈길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성전까지 다시 돌아오는 원 모양을 이루고 있다 (3:13-32).

당신의 목표를 평가절하 하는 것(4:1-3)

이 구절들에서 느헤미야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자들이 이 책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다 (2:10, 19). 어떤 부정적인 소리들과 훼방가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슬픈 기억이다.

이전에 산발랏은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경멸했다. 그는 관심을 가질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진보를 보면서 더욱 분노했고 더욱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냈다. 그는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를 죽이기 원했고 (4:1), 그의 대담함을 통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기 원했다(4:2).

산발랏은 다섯개의 약간은 수사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이 공사가 언급된 목표대로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공사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하고, 비웃었으며, 혹은 최소한 최소화 시키기 원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힘도 없는 유대인들” 이라고 묘사했다 (4:2). 그 다음 두 개의

질문들은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유대인들이 신의 도움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 하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마지막 두 개의 질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도비야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는 공사 자재의 질과 기술력의 부족 때문에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비유는 한 마리의 여우가 올라가도 그럴 정도이면 자기와 산발랏이 그 공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말이다.

조점을 흐트러뜨리는 것(4:4-6)

비판하는 자들은 관심과 주의를 끌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결정한 것을 방해하게 놔두서는 안된다. 나는 느헤미야가 성가신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존경한다. 그는 이 일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과(4:4-5)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4:6) 유지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탄식하는 형태이다. 탄식 속에서 사람은 삶 속의 슬픈 환경,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온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괴롭혔다. “업신여김” (4:4)은 어떤 사람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 기도 속에서 강하면서도 보복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을 설명해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시기 보다는 처벌해줄 것을 간구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복적인 기도를 한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당면했던 상황을 완전히 알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그가 했던 식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마 5:43-48; 롬 12:14-21; 벧전 2:20-23절 참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나 적대자들을 용서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의 감정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지도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그 공사가 약 반쯤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각각의 팀들이 동시에 일하면서 그 성벽 (전체)은 거의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반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 공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했다는 것이다 (6:1-3).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6:15).

적대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언어적 조롱은 위협하는 방해로 바뀌었다 (4:7-23). 그 반대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전략은 만일 필요하다면 힘으로 그들을 방어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적용 및 실천

어떤 사람들은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시고 보호 해주셔서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반대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좀더 균형있는 관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방식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만들어 내서도 안된다.

어떤 비판자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견고한 적대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통전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결코 이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놔두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떤 비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내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평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할 수 없다.

질문

1. 당신이 최근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혹은 직장생활에서의 비판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불공평하게

비판을 받았는가, 아니면 정직한 비평을 들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 당신 교회의 식구들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다양성을 생각해보라. 공통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도 다양하며 방법들도 다양할 수가 있는가?

3. “우는 아이 젖준다.” 이 속담을 느헤미야의 태도와 행동에 적용해 보라. 그는 반대 세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았는가?

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마 5:43-48)을 순종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보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쉽다 (4:4-5).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참고]

성벽의 건축과 무너짐

느헤미야가 지으려고 했던 벽은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벽은 나누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어진다. 고대의 벽들은 미개한, 혹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과 문명화된 세계 사이를 가르기 위해 지어졌다 (영국의 하딘 성벽). 근대의 벽들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막기 위해서 지어진다. 1987년 6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의 브랜든버그 게이트 근처에 서서 러시아 대통령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건넸다, “고르바초프씨, 이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느헤미야는 포용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유다 백성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통합된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꺼이 일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p>[제 9 과]</p>	<p>신실하게 행동하라</p>
<p>핵심본문 느헤미야 5 장</p> <p>배경 느헤미야 5 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과 관용으로 행하고 사람들이 억압받을 때 불의에 맞서야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다.</p> <p>탐구질문 힘 없는 사람들이 불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실까?</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게 행동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길들을 파악한다.</p>

들어가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에 속한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의 도구로 부르신다.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다. 나는 나의 집에서 딸 아이가 그의 오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특권들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한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막 여생을 즐기려 할 즈음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말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인생을 경험하곤 한다. 인생 가운데 불공평한 것들 중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의존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대처할 수 있는 불공평한 일들을 경험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과 결과들을 바라보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혹은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갈취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동 시키셔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하셨다.

본문해설

불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5:1-5)

느헤미야의 다른 장들은 느헤미야의 공사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산발랏과 도비아의 외부적 반대에 대해서 묘사한다 (느 4: 6). 하지만 이 번 장은 유대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 성벽 공사 자체가 이 위기를 양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 프로젝트는 두 달 채 못된 9월 초에 완료 되었다 (느 6:15). 이는 그 공사가 포도와 다른 과일들의 수확기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들이 느헤미야의 재건 공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추수를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떠맡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두려운 경제적 상황들을 알게 되었다.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5:1)는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집단 항의가 일어날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똑 같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억압 아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묘사한다 (출 3:9).

그 불평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것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돈이 말라 버렸고 신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닥이 났으며 빚이 더욱 늘어갔다. 땅이 없었던 가족들은 매일의 필수품을 얻을 수 없었다 (5:2). 그나마 땅이 있었던 사람들도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두 저당잡히고 말았다 (5:3). 뿐만 아니라 땅 소유주들은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 했다 (5:4). 성경 외의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의 세금은 상당히 무거웠고, 제 날짜까지 내지 않으면 매일 이자가 붙어났다.

유다의 이 거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를 노예로 팔아야 할 정도로 (5:5)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매우 절망적이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너무 집착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불공평에 눈을 돌리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는 완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취급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불의에 맞서기 (5:6-8)

느헤미야는 일부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들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알자마자 행동했다. 먼저 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5:6). 그는 동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는 것을 보고 역겨웠고 실망했다. 느헤미야의 첫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예배자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을 때를 기억나게 한다. (마 21:12-13).

느헤미야는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했다 (느 5:7). 그는 성벽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의에 책임이 있었던 부유한 소유주들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그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동들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스타일은 놀라운 본보기가 된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인신공격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면했다. 그는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의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돈놀이” (5:7)는 동사와 명사 모두의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다.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살피야 한다. 이것은, 돈을 빌리는 것,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 혹은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해석할

수 있다. 담보를 잡는 것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항상 관용과 온유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출 22:25-27; 레 25:35-38; 신 15:1-8; 24:10-13).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빚을 못갚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채무자들의 소유물을 차지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행습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공포했다.

채권자들인 “귀족들과 관리들”의 침묵은 죄의식의 소리였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불의를 해결하다 (5:9-13)

느헤미야는 그 탐욕적인 빚쟁이들이 그들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범죄를 지었다 (5:9).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모욕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느헤미야나 혹은 그의 가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이러한 불의한 행습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아마도 그들은 단지 모세의 법을 따라 공평하게 돈을 빌려주었을 수도 있다 (5:10).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단계를 밟았다. 그들은 땅을 차압하고 사람을 사는 행습을 당장 멈춰야 한다 (5:10). 둘째로, 그는 그들이 이미 탐욕으로 갈취한 부동산들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5:11a).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자로 받은 돈도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5:11b). “The hundredth part” (5:11)는 월 이자 1% (연이자 12%)인데 이는 이 당시의 이자 비율을 생각할 때 매우 낮은 것이었다.³ 남아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의 이집트에 있었던 유다 공동체에 성행되던 이자율은 40~60%까지 이르렀다.

느헤미야의 제안은 강력했다. 잘못된 사람들은 원리적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5:12a). 원리적 동의는 그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인준되었다.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를 받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5:1b). 느헤미야의 예언자적 상징적인 행동, 주머니를 털어보이는 행동은 그들이 했던 맹세가 얼마나 신중한 것인지를

³ 본 성경공부 교재의 한글 성경으로 사용된 표준새번역은 “비싼 이자”로 번역했고 개역성경은 “..새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라..”고 번역했다.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들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5:13).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불의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앗아 갈 것이다.

불의를 방지함 (5:14-19)

이 구절들은 느헤미야가 해결했던 경제적 위기의 시대 이후를 바라본다 (5:1-13). 이 구절들은 이 지도자의 유다 총독으로서의 첫 임기동안 일반적인 행동을 관망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는 정책이나 구조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통한 정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경제적 위기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동정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또 다시 좋은 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엘모 존슨 (Elmo Johnson)은 그의 패턴을 취해 왔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이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다.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1968년에 휴스턴으로 이사왔다. 그는 Houston Baptist University 졸업생이며 BGCT의 이사이다. 1984년부터 그는 Rose of Sharon Baptist Church 의 목사로서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참고 부분의 “Elmo Johnson-Making a Difference” 를 꼭 읽어보라.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근무했다 (5:14).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 느헤미야에게 20 년의 여행허가를 내주었다 (1:1; 2:1).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끝난 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공사결과를 왕에게 보고했던 것 같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총독으로 임명 받고 유다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그는 12년 후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3:6)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기간동안 왕을 섬겼을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 총독의 공적 업무비용과 사적인 생활비는 왕에게 바쳐지는, 그리고 징수되는 세금으로 충당되었었다. 자주 그 시스템은 총독 맘대로 사용하는 돈 때문에 남용되곤 했었다.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총독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다 (5:15).

느헤미야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럴 필요가 있었다. 18절에 나오는 음식이

공급 수는 우리에게 작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처음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상적인 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헤미야는 세금으로 받는 녹을 받지 않기로 했다 (5:14, 18).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이상의 것을 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5:15),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다 (5:18).

느헤미야는 공평과 정의로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정직함으로 통치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었다.

적용 및 실천

기독교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중의 하나는 희생,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자신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본이 되신다.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도 그의 희생적으로 살으셨음을 증거해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나가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

삭개오는 이것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눅 19:1-10).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정죄 받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보다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셨다. 그는 사회 속에서 힘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질문

1. 연예인들은 다양한 활동가, 혹은 유익한 일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이름을 이용한다. 그들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2. 당신이 사는 곳에 간과되고, 무시 당하고, 혹은 비양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만일 그 우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3. 당신이 가장 최근에 정말로 화가 났을 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공격했거나 혹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공평하게 취급받거나 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가?

4. 동료 그리스도인과 대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응해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참고]

Elmo Johnson - 변화를 일으키다

샤론의 장미는 휴스턴 다운타운 서쪽의 Fourth Ward 에 있다. 한때는 Freeman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의 하나이다. 그 동네는 어려운 시기에 알려졌다. 1980년, 그 거주민의 반정도가 극빈하게 살았고, 동네 주민 중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 미만이었다.

엘모 존슨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955년, 그의 교회는 Uplift Fourth Ward 라는 기치하에 믿음에 근거한 경제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는 Houston Endowment, Sisters of Charity, 그리고 Trammell Crow Residential 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고무시켰다. 그 결과 중의 하나는 2007년 노인 아파트 단지를 오픈할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저소득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아파트다. 그는 또한 Rice University 와 Texas Southern University 가 동네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참여시켰다. 엘모 존슨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을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p>[제 10 과]</p>	<p>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p>
<p>핵심본문 느헤미야 7:73b; 8: 1-4a, 9-18</p> <p>배경 느헤미야 7:73b—9:38</p>	<p>학습주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한다면 어떤 유익이 일어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나, 우리 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p>

들어가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도 (성벽을 건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조차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 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랑크 윌즈(Frank Wills)는 건물 최하부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사이 문 위에 기묘한 테이프(tape)가 묶여있는것을 느꼈다. 윌즈는 이 테이프는 문의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도중 묶은 것이라 일단 생각했지만 금방 누군가에 의해 테이프가 묶여있는걸 느끼고 침입자라 생각해 워싱턴 시경에 통보했다.

경찰은 도착 후 같은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본부 사무소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명은 비질리오 곤잘레스(Virgilio González), 버나드 버커(Bernard Barker), 제임스 W. 맥커드(James W. McCord), 유진니오 마르티네스(Jr. Eugenio Martínez), 프랑크 스테지스(Frank Sturgis)이다. 이후 증거사진에서 그들은 3주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했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재설치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명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워터게이트 스캔달” 이라고 불린다. 그 명칭은 불법 침입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유래한다. 그 장소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8장은 당시의 많은 설교자들의 본문이 되었고 성경 공부 인도자들의 주제가 되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문 (Water Gate)은 용수 공급처 근처에 있는 도시의 문인데, 이 문 바로 안쪽에 있던 예루살렘의 공공 장소에서 총회가 소집되었었다. 유죄의 판결과 그에 대한 회개를 이끄는 성경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이 나라가 그러한 부패와 부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었었다.

이 장은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모든 세대마다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 지도자는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또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본문해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청 (7:73b; 8:1)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7:73b) 는 말씀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의 목록과 그 다음 장의 총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목록은 에스라 2 장에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총회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몇 달 뒤에 소집되었다.

“일곱째 달” (7:73b)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달 중의 하나이다. 이 달에 (우리의 9월) 많은 축제의 날들이 집중되어 있다. 마치 우리의 추수감사절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의 연휴 기간과 비슷하다. 이 축제 기간에는 후에 새해 절기로 지켜지는 나팔절(첫날)이 포함되어 있다. 장막절은 일주일간 지속되었다 (15 째날부터 22 째날까지).

이 중요한 달에 “모든 백성이” (8:1) 특별한 목적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백성들은 그 모임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 그들이 이장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장에서 “백성” 혹은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13 번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수문” (8:1; 3:26; 12:37)은 기혼 샘물 근처에 있었다. 기혼 샘물은 그 도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자연 샘이었다. 이 문은 성전의 남쪽에 있었다.

“모세의 율법책” (8:1)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첫번째 다섯권을 말한다. 이 책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람에게 약속하셨고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를 읽게된다.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있는 가르침이었다. 성벽 재건과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시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와 인도하심을 위해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8:2-4a)

일곱번째 달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달 중의 하나이었고 즐거운 축제의 달이었다. 총회의 초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서로 관계하는 지에 대한 인도하심이 기록된 이야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기록된 말씀에 대해 커다란 경외감을 나타냈다. 온 백성들이 참여했다. 알라들을 만 한 사람들 (8:2-3)이란 어린이들을 언급한 것임에 틀림없다. 비슷한 문맥에서 어린이들은 특별히 지칭된다 (에스라 10:1).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열자, 백성들은 일어났다 (느 8:5). 그들은 서서 존경심을 나타냈다. 사실 그들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읽었던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여섯 시간 내내 서 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귀를 기울였” 기 때문이다 (8:3).

이 일을 위해서 준비과정이 있었다. 그들은 나무로 된 강단, 혹은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그것은 최소한 열 네명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것이었고 (8:4) 그 광경을 바라 보고 온 군중들이 에스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높이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이 강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기 (8:9-12)

두 명의 동료 - 느헤미야와 에스라 -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8:9). 분명히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자신들의 죄된 삶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확신을 주고 심판하는 힘이 있다 (히 4:12)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였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아마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날은 그 달의 첫번째 날 (8:1), 즉 나팔절이었다. 그날은 기뻐하는 날로서, 그리고 축제의 날로서 제정된 날이었다 (레 23:23-25; 신 16:13-15).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돌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슬픈 마음으로 출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도록 했다. “살진 짐승” (8:10)이란 문자적으로는 비개 덩어리 고기를 의미하는데, 이 부위는 당시에 가장 즐겨 먹는 부위였다. 그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은 더욱 배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축제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8:10, 12).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가운데 축제를 즐겼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을 날게

했다. 그 기쁨은 그들의 강함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용기였다 (8:10).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진실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8:13-18)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여해야 하는 매우 아름다운 특권의 장면을 제공해준다. 두 가지 독특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모든 회중 (성인, 청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8:1-12 절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본다. 또 다른 장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기록된 말씀을 좀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이다 (8:13-17). 그것은 우리가 성경공부 그룹이나 혹은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보내는 역동적인 시간이다. 또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또 하나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8:12). 가정의 머리가 되는 중요한 책임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좀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날 돌아왔다 (8: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펼 때 새로운 통찰력들을 발견한다. 가정의 이 가장들은 장막절, 즉 초막절에 지켜야 할 것들 중 몇가지가 잊혀졌다는 것을, 혹은 무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임시로 지은 초막에서 지내고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하며 지냈던 것을 후손들이 매년 기억하며 지켜야 했던 율법이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잊혀졌었던, 혹은 무시되었었던 규례들을 기억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15 절의 내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구절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종려나무와 참나무”는 레위기 23:40 절에 나오지만, 올리브 나무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백성들은 즉시로 “율법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8:13; 16-17). 이 포로후기 사람들은 임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했다.

그 축하는 이례적으로 의미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빌론 유랑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2차 출애굽처럼) 의한 기념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에 의해 인도되었던 세대가 기념했었던 축제에 비교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교를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도 본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는 솔로몬의 그것과 비교된다 (역대하 30:26). 요시아의 유월절 축제는 사무엘의 그것과 비교된다 (역대하 35:18).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들에 따라 사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다 (느 8:17). 왜 이러한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가? 느헤미야의 회중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장막절을 축하했다 (8:18).

적용 및 실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뭘을 상기시켜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록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받게 된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매년 축제를 함으로써 이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우리가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질문

1. 오늘 수업은 우리가 성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예배, 소그룹 성경공부,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 경건의 시간이다. 당신은 이 세가지를 균형있게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인가?

2. 성경을 읽다가 울거나 기뻐했던 마지막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3. 고대의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믿는가?

[참고]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The Feast of Tabernacles 또는 The fest of booths)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며 히브리어로는 '쑤컷'이라고 부른다. '쑤컷'은 우리말로 초막 혹은 장막을 뜻한다. 장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삼대 절기 중의 하나로서 고대에는 이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다. 따라서 장막절은 "여호와와 절기"(레 23:39; 사 21:19) 또는 단순히 "절기"(왕상 8:2,65,12:32; 겔 45:25; 느 8:14; 대하 5:3,7:8)라고 불리웠다. 절기중의 절기였기 때문이다.

가을 축제인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된다. 양력으로 티슈리월은 보통 9월달이다. 첫날은 일이 금지된 완전한 휴일인 '욘 토브'로 지킨다. 장막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출애굽 이후의 40년간의 광야생활을 기념하는 역사적 요소요, 둘째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The Fest of Ingathering; 출 23:16b,34:22b)을 지키는 농경적 요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명절이다. 이는 유월절이 곧 무교절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이스라엘 농부들은 일년에 세번 추수하였으며 이추수기들이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을 이루고 있다.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절기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을까?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란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한 것이 칠칠절이다. 반면에 일년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것이 장막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

몇 년 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 성경을 읽도록 권면했다. 나는 그들에게 매일 최소한 15분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도전했다. 한 성도가 나에게 이메일 했는데 그녀는 그녀의 성경공부를 못해서 아쉽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진행과정을 나에게 알려줬다. 그녀는 정말 잘 해냈다. 이 교훈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p>[제 11 과]</p>	<p>하나님께 감사</p>
<p>핵심본문 느헤미야 12:27-43</p> <p>배경 느헤미야 12</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p> <p>탐구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인가? 너무 오래 되지 않았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할 특별한 복을 생각하고 깨닫는다.</p>

들어가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고 선언한다 (애 3:22-23).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쁜 감사도 역시 그래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변을 싸고 있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원해서 나선 우리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건축 공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헌신할 것을 선서하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갔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 서에서 공사 계획과 공사 그 자체에 대한 기사는 (느 1:1-7:3) 완성된 공사를 봉헌하는 기사와 분리되어 있다 (12:27-43).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은 이 중요한 공사를 완수했던 유대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포로 유랑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일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벽 건축의 결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던 사람들의 목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사건의 순서대로 연속해서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6:15-7:3절을 읽고 바로 몇 장을 뛰어넘어서 12:27절부터 읽으면 된다.

본문해설

목적이 있는 축제 (12:27-30)

이 장엄한 행사의 목적은 분명했다. 성벽 “봉헌식” 이었다 (12:27). 이 명사를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 동사 어근은 차낙 (chanak)이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에게 관련지어 사용될 때는 훈련을 시키다, 가르치다, 영향을 미치다 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잠언 22:6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이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사물에 관련지어 사용되는 경우인데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는 어떤 건물의 공식적인 개막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하누카,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이 이름은 이 단어에서 온것이다.

우리도 역시 그 두 가지 의미로 dedication (봉헌) 을 사용한다. 우리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헌아예배나 부모 헌신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또한 신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때론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 봉헌의 예배를 드린다. 봉헌하는 것이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든, 물건에 관련된 것이든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하겠다는 헌신의 상징이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봉헌식의 느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행복하고 매우 축제적인 분위기였다. “즐겁게 봉헌식” (12:27)을 했다. 그들은 감사를 드리며 기뻐했다. 음악의 요소들은 이러한 축제 분위기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목소리와 악기 모두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날에 그들은 타악기와 현악기를 모두 사용했다.

“거문고와 수금” (12:27)은 후기에 개발된 악기이다. 그것들은 타악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다. 하프는 오늘날 앉아서 연주하는 커다란 형태와는 달랐다.

이 축제의 지도자들은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 그들은 “레위인들” (12:27) 혹은 “노래하는 사람들” (12:28)에 의해 보조를 받았다. 여기에서의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바빌론 유랑 이후 이 제사장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찬양과 예배 의식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 마을에 사는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소집했다 (12:28-29). 네토파(Netophah,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남동쪽 근처)를 제외한 모든 마을들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다. 모두 예루살렘에서 8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

이 봉헌식은 백성들,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연루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봉헌식은 정결 의식이 요구되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12:3)은 문자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신체적, 도덕적, 혹은 의식적 깨끗함을 의미한다. 정결의 필요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결한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 정결 의식은 옷을 빼는 것, 부부가 성적인 접촉을 멈추는 것, 몸의 털을 깎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혹은 의식을 위해 준비된 정결한 물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뿌리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 19:10, 14-15).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의식이 치러지는 유일한 경우이다.

창의적 축제 (12:31-39)

예배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창의성을 구했다. 그 갈망은 이러한 계획들이 깨달음을 증진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더욱 기쁘게 축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지도자들은 계획함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이었다. 그 축제 자체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성전 근처에서 거행되게 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감동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 지역을 행진했다.

이 과정의 정확한 조직은 분명하다. 두 그룹으로 형성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지도자들 연합은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될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그들이 이 행진 마지막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성벽 외곽을 따라 행진함으로써 그 도시를 완전히 돌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미신적이거나 마술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룩했던 그 공사가 완전히 그 도시의 모든 곳을 보호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 서의 본문에서 두 개의 각 그룹은 찬양을 부르는 합창대와 그들과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포함하고 있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를 큰 찬양대”는 한 히브리어를 제시하는데 즉 “감사”에 대한 단어이다 (12:31; 12:27). 찬양대는 시편 48, 혹은 147편을 노래했을 것이다. 느헤미야 12:34에서 우리는 타악기와 현악기 외에 나팔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게된다. 31-37절은 에스라가 이끈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이 돌았던 성벽의 부분에 대해서 말해준다. 느헤미야는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 (12:40-42),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성벽을 돌았던(12:38-39) 두 번째 그룹을 이끌었다.

이 본문은 그 행사가 시작되었던 곳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아마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곳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답사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다 (2:13-16). 그 유명한 문은 다른 무리들이 지나갔던 장소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유적들은 느헤미야와 그 무리가 북쪽 방향으로 행진하는 동안 에스라와 그가 이끌었던 무리들은 골짜기 문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행진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또 다른 이슈는 그 행사가 행해졌던 장소이다. 그들은 분명히 성벽 위에서 행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성벽은 약 9피트 정도의 너비로, 한 사람이 그 위를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이었다. NIV 성경의 관주에 나온 설명처럼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 옆을 따라서 행진했을 수도 있다. 동쪽 비탈에 위치한 다윗의 옛 성 안에 있는 성곽을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 같다 (12:37).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부분은 가파른 비탈지역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그곳에 있었으며 그래서 계단들이 필요했다. 그 행진은 다윗의 실재 집이라기 보다는 다윗이 살았던 영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에브라임 문” (12:39)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예루살렘 도시의 북서쪽 코너의 바로

남쪽에 있었다. 행렬이 멈추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Gate of the Guard)” (12:39)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느헤미야의 무리가 양문을 지나갔고, 에스라의 무리가 수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은 이 두개의 문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커다란 기쁨이 넘치는 축제 (12:40-43)

그 인상적인 진행은 지도자들을 그 축제가 일어났던 장소로 모이게 했다. 우리는 이 퍼레이드가 끝나갈 때 즈음의 그 기쁨과 흥분을 감지하기 어렵다. 당신이 그 성 안에 있고 사람들이 각각 행렬을 맞춰서 성벽을 따라 행지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음악 소리와 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당신의 귀에 스테레오로 울려퍼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분명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12:40)은 감사 예배를 위해 마련된 성전 마당을 가리킨다. 연합 합창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12:42). 예배를 드리는 회중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느헤미야 8장의 집회에서처럼). 그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그들은 봉헌과 축제의 다른 것들을 행했다 (에스라 3:3-5; 6:17). 그 예배의 기초적인 요소인 기쁨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기쁨”의 어근은 느헤미야 12:43절에서 다섯번이나 나온다. 그들은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만큼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이 축제의 시간은 커다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정말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공동체가 실질적인 도전들을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느헤미야가 접해야만 했던 몇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을 드러낸다 (느 13). 우리는 항상 도전과 어려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러한 현실들이 축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용 및 실천

축제나 혹은 절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중요한 업적들을 기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생일 파티, 졸업 파티, 스포츠 챔피언십 파티, 결혼 피로연, 결혼 기념일,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

파티 등을 계획한다. 우리는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기리는 것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감사를 올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과(기도) 행함으로(파티) 감사를 드려야 한다.

나는 최근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복을 목상하기 바란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 여행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근에 받은 복을 기념할 계획을 세워라.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격려하면서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나는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쓰는 것을 즐거워 했다. 나는 이제 막 그것을 마쳤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할 것이다!

질문

1.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물건들을 봉헌한다. 잠시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람을 봉헌하는 것과 어떤 물건을 봉헌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2. 당신의 교회가 최근에 행했던 영적 성취에 대한 가장 창의적인 축제는 무엇이었는가?
3. 느헤미야 서에 나오는 이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커다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보이고 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4.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배, 침례, 주의만찬, 혹은 다른 의미있는 시간들을 단지 경외감을 유지하는 것에서 축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고]

레위 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던 직분이었다. 레위인들은 야곱의 아들 중의 한 명이었던 레위의 자손들이다. 레위는 레위 지파의 최고 조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섬기게 하는 선물로서 주셨다.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분배 받았던 가나안 땅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48개의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에 살았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형제인 아론의 직계 제사장들의 일을 도왔다. 그들은 많은 실질적인 일들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는 예배 장소를 관리하는 것 (성막, 후에는 성소),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것,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음악과 함께 제물을 나르는 것 등이 포함된다. 포로 유랑기 이후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그들의 책무 중에서 더욱 커졌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했었다 (느 8:9-12).

단원 5 과

말라기: 질문과 해답

말라기는 12 명의 소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다. 말라기가 어떤 선지자들과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말라기에는 학개나 스가랴처럼 기록날짜와 사역날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말라기서의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이방여인과의 결혼, 타락한 예배와 제사, 사회의 불의와 불공평)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시대에 사역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지만, 이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말라기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했을 때, 말라기는 BC 515 년, 두 번째 성전재건축이 완공된 후에 사역했을 것이라 의견이 있는데, 이는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사역을 했다는 견해이다. 아마 성전이 재건축 된 후에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는 비로써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유대민족의 나태해진 신앙생활 때문이다. 이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당시에는 성전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열정과 감사로 가득했다. 하지만, 성전재건축이 끝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열정은 약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점점 타락해졌다. 말라기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예배의 타락이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사역시기를 이쯤으로 추측하는 이유이다.

말라기서에는 말라기와 유대민족간의 6 개의 문답식 대화들이 소개되고 있다. 3 번의 성경공부를 통해 이중에 3 개의 문답식 대화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지난 주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미래”를 바라 봐야 한다고 배웠다.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 계속되는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단원 5, 말라기: 질문과 해답

제 12 과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말라기 1:6-14; 2:4-9
제 13 과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하실까?	말라기 2:17-3:5
제 14 과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	말라기 3:6-12

<p>[제 12 과]</p>	<p>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p>
<p>핵심본문 말라기 1:6-14; 2:4-9</p> <p>배경 말라기 1:1-2:9</p>	<p>학습주제: 겉모습만 형식적이고, 진실한 헌신이 없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우리의 종교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p> <p>학습목표: 우리의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잘못된 신앙습관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p>

들어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원하십니다.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뉴스를 본다. 왜냐하면 뉴스 앵커라는 직업을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앵커가 뉴스를 준비하는 것을 상상하면, 어떻게 그들이 시간 구성에 맞게 말하는 속도를 맞추는지 궁금하다. 가끔은 방송하는 동안 자막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앵커가 얘기를 하는 도중 잠깐 멈추고 기다리는 경우를 볼 때도 있는데, 이는 그가 뉴스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막을 읽어나가는 것뿐이지, 그 스토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앵커가 와, 정말이지 비극이네요!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뉴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앵커가 정말 그 뉴스의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적인 멘트 뒤에 “자,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투가 바뀌는 것을 보면, 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저 사람은 그저 뉴스 대본을 읽는 것뿐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전하는 뉴스의 내용에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좀더 신령하고 진실하게 드러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 나의 속 심령과 겉 모습이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동작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꼭 빠지는 게 필요한 것이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다. (여섯 가지 질문은 1:1-5; 1:6-2:9; 2:10-16; 2:17-3:5; 3:6-12; 그리고 3:13-4:6.에 있다.)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은 5과 개요를 참조하라.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를 원하신다 (1:6-9)

말라기는 두 번째 질문(말라기 1:6-2:9)에 앞서, 첫 번째 질문(1:1-5)을 통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1: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깨닫기 원하신 또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이치이며 이런 공경과 존경에 관한 문제들은 간단해 보였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이고, “주인” 이라면 당연히 그의 아들인 유대민족에게서 공경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공경과 존경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경멸하였다고 나무랐다 (1:6).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뻔뻔하다고 말했다 (1:6b). 하나님께 대드는 버릇없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 그들의 무시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이해시키고 가르치시길 원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음식을 바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1:7a).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1:7b).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1:7c)라고 다시 대답하셨다.

이 대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경멸을(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와 주인으로써 존경을 받지 못했으므로) 적절치 못한 재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 따르면 재물은 신에게 드리는 양식과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신의 보살핌에 보답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책임 중에 하나는 재물로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교도들과 달랐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바치는 재물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더러운 빵”과 “주의 제단” 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불경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이교도들이 제단에 음식을 던져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동물은 흠이 없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이 아닌 더러운 재물을 바쳤다.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1:8). 만약 눈먼 동물을 가지고 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약 발을 절거나 병이 있는 동물을 가져왔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분명히 그들은 이 질문의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질문을하신 후에, 약간은 비꼬는 어투로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바쳐보라고 한다. 총독이 이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겠는가? 다시, 그들은 이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다. 어떠한 총독도 이러한 불결한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것이었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1:9a) 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처참한 재물을 드리는 유대인을 흉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정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아마 더욱 침울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1:9b). 이것이 수사학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대답은 아니오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언급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 당신의 최상의 것을 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더 못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헌신도 없이 최소한의 것만 하는 체면치레에 불과했다.

무성익한 예배의 결과 (1:10-14)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경멸하여서 몹시 상심하였다.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소리치며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1:10).

그들의 불경한 제물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하셨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게 아니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 (B.C. 8세기)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물 받기를 거부하셨었다 (아모스 5:21-24).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더 이상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나쁜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1:11). 주의 이름이 동에서 서까지(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 이르는 모든 이방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흠 없는 재물을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흠 없는 재물이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곳에든지 위대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 아무리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 받았지만 겉으로만 번듯한 형오스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중단하고 주의 이름을 다른 이방 나라에서 위대하게 될 것이었다.

이방나라에서도 똑같이 높임을 받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은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단 (“하나님의 식탁” 1:12)을 “더럽히고, 제물(“음식”)은 경멸적이었다(1:12). 제사장들은 또한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며 그들의 의무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고는 제물을 멸시한다 (1:13).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깔보는 듯하게 행동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로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들의 행동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것이 흠 없는 제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흠 없는 제물은 올바른 행동 (흠 없이)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였다 (1:14).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는 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왕” (1:14)이시므로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 속이는 자들은 저주받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동체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밖에 거하게 되었다.

제사장에게 하는 약속 (2:1-9)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영적 리더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엄청난 책임이 있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그들은 그 임무를 실패했고, 피해는 엄청났다.

잘못된 예배가 유대인 사이에서 드러지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훈계와 경고를 하기를 원하셨다 (2:1).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때는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2:2).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듣는 것” 이었다. 히브리어 동사로 “듣다” 는 또한 순종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확실하게 들음과 동시에 그들이 들은 말을 순종해야만 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 (2:1)였다. 그들이 경멸하고 속였던 그 이름을 이제는 존귀하게 여겨야 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제사장들과 그들이 받을 복은 저주로 바뀐다고 하였다. 사실상 제사상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는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저주의 결과가 그들의 자손에게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3a).

제사장들의 또 다른 저주의 결과로 그들은 수치스럽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성스러운 의무들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2:3b).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의 “똥” (2:3)을 그들의 얼굴에 칠하시겠다고 했다. “똥”은 제물로 바친 동물의 위에 남아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똥”은 제물을 정결하지 않게 만들므로 바쳐지기 전에 동물의 몸에서 제거하여 성막 밖에 버려야 했다.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제사장의 얼굴에 칠함으로 그들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제물을 바치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성막 밖으로 내쫓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비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레위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싶어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 (2:4). 이 제사장 제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와 한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야곱의 다른 아들/종족이 땅을 받는 대신 레위인들은 제사장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분리되었다. 이 약속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이었다 (2:5).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땅을 얻거나 보존하기 위해 싸워서 안됐다. 또한 땅을 일구어서도 안됐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었다 (2:5).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전달하고,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2:6-7).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2:8).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과 의무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2:9).

주께서는 그의 백성에게서 정하고 공경스런 예배로 존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시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합당하지 못했다. 참된 신앙으로 드리는 헌신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갔다. 행동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더러운 제물을 드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얼룩진 예배의 결과들은 그들의 신앙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성전은 닫혀졌고, 하나님은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돌봄은 백성에서 멀어져 갔으며, 성직자들은 영적 리더로써 가진 그들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저주받게 되었다.

적용 및 실천

하나님은 여전히 깨끗하고 공경스런 예배로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시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하는 모든 행위가 겉치레로 되기 쉽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짓이나 의무보다 더 한 것을

원하신다. 우리의 예배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다. 말라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지 배우게 되었다.

올바른 예배에 대한 책임과 가르침은 기독교 리더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의 - 부모님, 멘토, 선생님, 목사님 또는 친구- 책임은 상당히 중요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조화되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질문

1. 오늘날,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2.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3.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4.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는가?
5.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참고]

제사장들의 축복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은 식량을 위해 동물을 키우거나 작물을 기를 수 없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물을 통해서였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제사장과 때로는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의 한 부분만 태우도록 하였다. 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축복은 그들의 잘못으로 오히려 “저주”로 바뀌었다 (2:2).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저주가 되어버린 나쁜 제물들은 바로 자신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그들이 올리는 제물이 질이 나쁘면 그들의 식사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들의 저주가 어떻게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제사장 자신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공동 예배

교회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공동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집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나 자녀, 혹은 급하게 해야 할 일등의 잡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예배에 집중시키게 할 만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p>[제 13 과]</p>	<p>하나님께는 정말 심판하실까?</p>
<p>핵심본문 말라기 2:17 - 3:5</p> <p>배경 말라기 2:17 - 3:5</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단언하신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가?</p> <p>학습목표: 왜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며, 그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부한다.</p>

들어가기

하나님은 성실함을 요구했다. 성실함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귀여운 할아버지와 같았다. 그래서 난 오직 일년 내내 해야 할 일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뿐이었다. 기도할 때는 쇼핑센터에 있는 산타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무릎에 기어올라가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나의 리스트를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다, 귀여운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함을 느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말라기의 네 번째 질문에서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내가 어린 믿었던 산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실 때 사용하신 도구는 결코 좋은 장난감이나 예쁜 인형 같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었다.

말라기의 여섯 개의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의 배경은 말라기 2:10-16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포로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들은 그들이 없는 동안 그 땅에 들어온 이방 종교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을 깨트렸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혼(남편들이 아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나는 이혼)과 그들의 결혼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방종교로 자신을 더럽히는 유대인들을 경멸하였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2:17)

말라기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라는 말로 네 번째 질문을 시작하였다 (2:17).

말라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주를 오히려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부족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은 그런 거짓된 말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라고 반응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의롭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공의롭게 재판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며 따졌다 (2:17).

사람들이 고소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포로생활 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원했다. 물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기준이 뒤집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때로는 충실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이방나라들은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 오히려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했다.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시고, 나쁜 이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것이었다.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신실한 기독교 가족이 음주 운전자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또는 신실한 신자가 사기꾼이나 신분 도용자에 의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기 당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떨 때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을 살펴보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이들에게 당장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사기꾼, 신분 도용자들이 오히려 아무일 없다는 듯이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판의 날 (3:1-4)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지금 간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특사를 보내실 것이라 하였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특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오는 자이다. 또한 먼저 오는 자라는 개념은 출애굽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방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어진 천사를 연상케 한다 (출애굽 23:20; 33:2). 출애굽기간 동안 앞서 보내어진 그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고향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다시 임할 것을 미리 예비하게 된다 (말라기 3:1).

말라기의 메시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 남겠느냐? (3:2)”. 질문의 핵심은 그 누구도, 유대인조차도 그가 이르는 날에 견디지 못하며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그들의 압제자를 심판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유대민족은 그렇게 구하고 기다렸던, 주가 오시면 결코 인생이 갑자기 분홍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3:2b).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금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금속을 높은 열로 가해 녹여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표백하는 잿물”은 옷을 빨 때 쓰는 냄새가 고약한 비누이다.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은 오히려 금속이나 빨래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도움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게 한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적들을 전멸시켜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었다.

3:2에서 하나님은 불과 잿물로 비유하였지만 3:3에서는 정련공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3:3a). 한번 상상해 보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앉아서 금과 은을 다루는 정련공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정화대상자는 레위인이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써 레위인은 백성들의 영적 문제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정화는 전체 공동체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리더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비로서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다 (3:3b). 제 12과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닫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화가 된 후에, 의롭게 된 이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다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제물이 준비가 되면, 성전은 다시 열리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3:3)이란 옳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과 올바른 태도, 둘 다를 의미한다. 레위인들이 정화되면 제물도 다시 바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고, 제물이 올바르면, 그 때 하나님은 그 것처럼 제물을 다시 받으실 것이다 (3:4).

누가 심판 받을 것인가? (3:5)

3:5에서 말라기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2:17)라는 질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 진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가까워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는, “...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3:5)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종종 법적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이끌어내어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써 증언하고 또 판사로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몇몇 그룹의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신다. 첫 번째는 “점 치는 자”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미래를 바꾸려고 신을 조정하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점 치는 자는 이스라엘 법에서는 분명히 처형하게 되어있다 (출애굽 22:18). “점치는 자” 다음으로는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였다. 이 두 죄는 십계명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출애굽 20:14; 신명기 5:18,20).

나머지 세 그룹은 일꾼,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이용해먹는 자들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일꾼은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땅이 아니라 품삯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신명기 24:14). 과부와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는 족장시대에 가정에 가장의 부재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출애굽 22:22-24).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살던 외국인이었다. 이 나그네들이 땅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친절과 호의에 의지했고, 이는 그들에게 약점이기도 했다 (출애굽 22:21).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신실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뻔뻔스럽게도 배신하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짓밟았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적용 및 실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말라기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판이 없다면 자비의 필요성도 없어진다. 우리가 종종 등한시 하는 거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신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실한 믿음과 우리 주위의 사회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빨리 심판 받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행동들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과, 그 심판의 의도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질문

1.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열른 심판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가?
2.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생각되는가?
3. 하나님의 심판이 “연단하는 불” 또는 “표백하는 잿물” (3:2)이라고 묘사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
4. 말라기에서 일꾼,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의 죄악이라 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보는 불공평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참고]

주의 날

“그 (하나님)가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떠올린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묘사는 조금 다르다. 유대인들은 주의 날을 하나님이 이방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때라고 생각했다. 주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높임을 받고, 다른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 주의 날은 유대인에게 영광스러운 날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처참한 날이었다.

하지만, 말라기나 아모스 (아모스 5:18-20)같은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일깨워주려고 했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시면 주의 심판은 온 세계에 다 미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체성과 우월성조차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답게 행동했어야 했다. 아모스는 주의 날은 “어두움” 것이라고 알려줬다 (아모스 5:18).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날에 자신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민족들은 심판으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주의 날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대신 가능한 자신들이 먼저 더욱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고,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날의 어두움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희망했어야 했다.

자연 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허리케인, 쓰나미,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 도시나 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말한다. 하지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오히려 쓰나미가 일어난 곳에서 100마일 떨어진 마을에 사는 어떤 불신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자신의 가게에 고객이 늘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기도 한다.

당신이 한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과 가족,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당신에게 왜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는지 물을 것이다.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한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언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설명을 해 줄 것인가?

<p>[제 14 과]</p>	<p>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p>
<p>핵심본문 말라기 3:6 - 12</p> <p>배경 말라기 3:6 - 4:6</p>	<p>학습주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치 않은 행동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가?</p> <p>교육목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나 기쁜 맘으로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p>

들어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길 요청하셨다.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그들의 실패는 더욱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징조였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라면, 하나님과 그의 축복은 그들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조지는 평생 동안 농장에 살면서 들판에서 일했다. 힘든 하루가 끝나면 저녁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어느 날 채널을 넘기면서 미끈한 설교자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조지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즉, 농장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는 몇 분 동안 듣기로 했다. 곧 설교자의 억양은 그를 집중시켰다.

성경의 이상한 이름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았다. 설교자는 마치 조지에게 말하듯 카메라를 향하여 말했다. 만약 당신이 십일조를 나에게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조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그래서 조지는 주소를 적고, 그날 밤에 자신의 수입의 십 퍼센트를 보냈다. 그날 밤은 조지가 십일조를 하기 시작한 첫날밤이 되었고, 자신이 받게 될 원지 모르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얼마가 지난 후, 조지는 그의 삶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점이 없음을 깨달았다. 두서너 해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다음해에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2년 뒤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조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설교자에게 매달 십일조를 보냈다.

어느 여름날, 조지는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과 적은 품삯문제로 싸우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매일 밤과 똑같이 그의 아내에게 음식이 싱겁다고 소리를 쳤다. 식사 후 그는 시끄럽게 방해하는 딸과 손주들을 무시한 채 매번 그럴듯이 TV를 켰다. 그리고 예전에 봤던 그 설교자의 설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조지는 그 설교자가 사기꾼이며, 자신에게서 돈을 뺏어갔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자신을 속였다고 소리치고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때 그의 십대 손주들이 방에 들어와서 얘기했다. 할아버지!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가 얼마를 교회에 받쳤는가? 혹은 얼마나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문제는 교회에 십일조를 받치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3:6-7)

말라기 3:1-5에 있는 심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3:6-12절에서는 말라기의 다섯 번째 질문(하나님께 신실한 맘으로 드리는 예물)이 소개되고 있다. 하나님은 먼저 3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유다와 대화를 시작한다. 먼저,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6A).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셨다.

두 번째 진술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불변하는 신실함이였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말라기 3:6b).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과 의 약속을 어겼고 이로 인하여 벌을 받았다. 하나님과 약속한 모세의 율법에는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물처럼 아끼셨다.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성실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쫓지도 않으셨다. 포로생활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드디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진술은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3:7a)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정당성을 보여준다. 그들의 온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앞서 묘사된 제사장의 죄들을 보면 (2:8-9), 확실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제사장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진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3:7b)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들과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훈계를 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이 단지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 탓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축복을 그들에게로 돌릴 것이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은 4과(스가랴 1:3)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말라기 3:7c)라고 말씀하신다. 겉으로만 보면 이 질문을 꽤 정직해 보인다.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였던 비판적인 반응을 비추어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망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비꼬는 말투이다.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기 (3:8-9)

말라기 앞부분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3:8)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십 분의 일을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문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초기부터 십일조가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 그 예로 아브라함 (창세기 14:20)과 야곱 (창세기 28:22)을 보면 이 두 족장이 십일조의 관습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씨와 생산물과 농작물과 가축들의 십 분의 일 이 “주께 바쳐야 할 거룩한 것” (레위기 27:30-32)으로 나와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서 받쳐서, 레위인과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성소로 가지고 나왔다 (민수기 18:28; 신명기 14:22-29; 26:12). 말라기 3:8에서의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과 선물을 의미한다.

“십일조와 헌물”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한 필요한 공급원이었다. 십일조와 헌물 없이는 제사장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었다. 십일조와 헌물이 중단되자 예배도 중단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로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말라기 3:9). 이러한 경솔한 행위 때문에 일부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저주 받았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는 스가랴 8:9-11에 언급되었던 포로생활 후에 유대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다.

십일조와 헌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죄는 모든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다. 그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등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있었다. 십일조와 헌물이 가져온 실패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고린도 후서 8:1-6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행할 때에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린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한 마음에서 드리는 선물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신약에서도 연관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십일조를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신들의 모습을 높게 평가했다. 십일조가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일조를 따르는 것보다 이웃을 돌보고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누가 11:42).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주일마다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하는 바리새인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는 또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도 있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18:9-14).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험과 약속 (3:10-12)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 (지성소에 물건을 보관하는 곳)에 들여 놓아” (3:10)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먹을 수 있고, 레위인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10a).

지성소에 온전한 십일조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3:10b).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계속적으로 실패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시험에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늘의 수문이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죽이고 지구를 완전히 뒤덮었던 홍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7:11-16). 하지만 이런 수문의 개방이 오히려 축복의 홍수가 된다면, 우리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고, 십일조를 통해 창고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작물의 성장과 열매가 익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3:11). 식물을 먹어 치우는 벌레와 질병들을 중지시키시고, 포도밭이 완전히 익기 전에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으신다. 그들의 땅에 이러한 번영과 풍요를 통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2).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신명기에 나오는 심판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 원리는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루 나타난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랐고, 저주 또한 온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땅이 풍요롭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옳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땅을 뺏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에서 다른 구절을 보면, 말라기는 한가지 최후의 질문으로 끝낸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고, 심판의 원칙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악한 자가 회개하는 자신들보다 번영한다고 했다 (3:13-15).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될 때가 온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신실한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3:16-4:3). 말라기서 끝에는 백성들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4:5-6).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침례요한을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라고 했다. (마태 11:14; 17:12-13).

적용 및 실천

우리 모두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이 했던 십일조를 조금씩 받치지 않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러워 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허용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더 깊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말라기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고,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할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축복하신다.

질문

1. “하나님의 다양하고 변화무상한 성품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3. 오늘날에도 십일조의 원칙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4.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 중에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6)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몇 구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실제로 변했다고 말한다 (창 6:6; 출 32:14; 아모스 7:3,6).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일어난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신가? 아니면 진행되는 일에 따라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계속 논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백성을 향한 관계성과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사역하신다.

<p>[부록]</p>	<p>주님을 보라!</p>
<p>핵심본문 요한복음 20:1-18</p> <p>배경 요한복음 20:1-18</p>	<p>학습주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p> <p>학습목표: 각자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온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서로 나누어보자.</p>

들어가기

부활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 넘어 희망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나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다음의 장르들 중에서 한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추리, 드라마, 코미디, 액션, 공포... 요한의 부활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한다. 하지만 복음서의 작가들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단지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사복음서에 쓰여진 예수의 삶과 그가 행하셨던 많은 사건들을 믿었던 것처럼 부활사건을 믿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점점 약해지며 약간은 무관심하게 듣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을 느껴보고, 예수를 관리인으로 착각한 이야기에 한번 웃어보기로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느꼈던 절망감도 느껴보자.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넌 천사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자.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말을 전하는 마리아와 함께 기뻐해보자. 여러분 자신을 부활의 장면에 흠뻑 빠져들게 해보자. 그리고 이 사건을 굳게 믿자. 부활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밖에 서있다 (20:1-5)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멀리 밖에서만 지켜본다면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완벽한 시각을 가지기 힘들다.

남편과 나는 세이프코필드 구장에서 열리는 Mariners 야구경기를 보러 시애틀에 갔었다. 처음 그 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콘크리트, 벽돌, 그리고 유리등으로 만들어진 구장의 외관모습을 보고는 아마 실내도 비슷한 디자인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물론 실내에도 그런 재료들이 사용되긴 했지만, 외관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예술적인 감각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깜짝 놀랐었다. 야구장 실내는 야구방망이 상들리에, 바닥에는 대리석 조각들, 아름다운 벽 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처음에 겉모습을 봤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를 본 순간, 우리는 야구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야구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직접 야구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구장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선생이자 친구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요일 아침 일찍 그의 무덤으로 갔다 (요한 20:1). 요한은 그녀가 달려온 목적보다 그녀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무덤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놀란 것 같다. 그 만큼, 마리아에게는 새벽 잠을 깨워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마가 16:1에 따르면, 마리아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 했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다른 여성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유월절 기간이라 타 지방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어두운 예루살렘 아침 거리를 마리아 혼자서 걸어 왔을 리는 희박하다. 더욱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요한 20:2)라고 말했다.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이 혼자 무덤에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요한이 다른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언급 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과 개인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만 언급한 것이다. (마가 15:40-41; 누가 8:2).

훌륭한 추리소설 작가처럼 요한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 20:1)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왜일까? 아마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기 원했던 것 같다. 이어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 우리ㄹㄹ 잠시 속이는 것일까? 아니면 기적일까?

해답을 주지 않고 요한은 계속 이야기한다.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된다)에게로 달려와 주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다고 알린다 (20:2). 하지만 그녀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20:2). 그녀는 아마 도둑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였던 대제사장을 영두 해두고 했던 말이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우리도 종종 알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탓으로 돌린다. 그녀는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그녀의 논리상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성과 믿음은 종종 충돌되지만, 항상 믿음이 승리해야 한다.

마리아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다 (20:3-4). 일반적인 관점에 의하면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했을 것이다. 아니면 요한이 무덤에 이르는 길에 더 익숙해서 지름길로 갔을 수도 있고, 예수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에 아주 힘껏 달렸을 수도 있다. 아무튼,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린 것 같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무덤 안을 -구부려- 보았다 (20:5). 그가 본 것은 세마포였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다. 그가 본 세마포 때문에 그는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비싼 세마포를 남기고 간

무덤 도둑? 마리아의 말 때문에 도둑이 연상되었었는데, 남겨진 세마포를 보면서 갑자기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그 생각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은 무덤 밖에서 관찰하였고, 그들이 본 것으로 만족해 했지만, 베드로는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안으로 직접 들어가다 (20:6-10)

방안에 2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다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방안에 들어온 사람의 축 쳐진 어깨를 보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몹시 피곤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부상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첫 부활절날, 빈 무덤과 세마포를 같이 보았지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을 가정으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 장소를 조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이 설명한 무덤 안의 모습은 혼돈이나 급히 서두른 흔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 안이 잘 정리된 분위기라고 표현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들이 실제로 가져갔다면, 그들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머리를 씻던 수건은 잘 접어서 “있던 곳에 그대로” 놓았다는 말인데 (20:7), 이는 정말 의심해볼 만 추리이다. 예수님은 세마포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실 때 나사로는 천을 두르고 나왔다 (요한 11:44). 아마 나사로는 언젠가는 다시 그 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창고에 잘 보관했을지도 모른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뒤 요한이 그를 뒤따랐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을 살필 후에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의문이 생겼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누가복음 24:12을 참조). 요한은 그저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 20:8).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빈 무덤만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요한은 어느 누구도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20:9).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함을 확신하였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연이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요한은 그렇게 믿었다.

요한은 자신과 베드로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설명을 마쳤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사건에서부터 그들의 존재는 설명되지 않는다. 요한이 “믿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났다고 어렵듯이 믿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그가 왜 좀더 무덤 곁에 머물지 않았는지 이상해 보인다. 좀 더 기다렸다면 아마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도 만날 수 있었을텐데…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주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이다.

질문과 답 (20:11-18)

마리아가 왜 그리고 언제 무덤에 다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원가를 무덤에 놓고 왔기에, 그걸 다시 찾으러 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방문하는 식으로 무덤근처에 있기를 원했을 지도 모르고, 아니면 예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조사하기 위해 무덤 주위에 있었을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마음이 아주 상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울음은 흐느낌이 아니라 심한 통곡이었다.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어다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20:5에 있는 그리스어와 동일). 혹시 시신이 다시 그곳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무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을까? 그녀는 확실히 무덤 안을 쳐다보고 무언가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있는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아주 신비스러웠기 때문에, 그녀는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감동받지 못한 듯 보인다. 그녀 자신의 슬픔에 너무 열중해 있었는지 (보통사람들의 반응처럼), 눈물이 앞을 가려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녀에게 왜 우냐고 묻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말한다 (20:2). 단지 이번에는 “우리” 라는 말 대신 “나” 라는 단수를 써서 표현했다. 그녀는 무덤에 혼자였고, 대답을 하면서 절망했지만, 천사들은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처음부터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울면서 뒤 돌아섰는데, 거기엔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20:14). 그녀가 그를 즉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은 아ماغ시관과 십자가의 고통 이전부터 이미 매와 채찍으로 많이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마태 27:29-31,

요한 19:1-2을 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일한 제자는 아니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 24:13-35).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던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아마도 지금 “흠에 속한 자의 형상” 대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15:49).

그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같이 “왜 울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20:15). 마리아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신, 그녀는 한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이 남자를 공손하게 “선생님” 이라고 부른다면 그가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인가!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했고, 이때 작가는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을 앞에도 불구하고 “그가” 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인간은 확실히 당황할 때, 비논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은 결국 “마리아!” 하고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그를 알아보았다 (20:16).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 (요한 10:3-4).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부니” 라고 대답하였다.

이 최고의 순간에, 사랑하는 선생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잠시 옆으로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20:17)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디로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것을 막았다. (예수는 나중에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다, 20:27) 그 말은 그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활의 기쁨과 복음을 마음껏 누리
시간이다. 나의 부활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처럼, 나를 붙잡아서 숨기려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일을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오실 성령님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인데, 이럴 때에 그녀가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16:7).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1세기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써,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20:29).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형제들” (친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 12:49-50을 참조)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께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20:17).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1:1; 10:30; 빌립보서 2:6)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요한 14:2-4).

마리아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임무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에게 그런 중요한 임무가 주어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를 보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다 (20:18). 요한 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증언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한다.

의미와 행동

요한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20:30-31)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썼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는 자들의 간증을 기초로 세워진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실을 숨길 경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알아내려고 할 테니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시신은 그 후에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고전 15:6)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적당한 뇌물로도 충분히 500명중에 한 명이라도 비밀을 폭로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신자들이 죽임까지 당했으니 그 고백은 참으로 믿을만한 것이다.

요한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부활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17)라고 말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6:23), 죽음 너머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7).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확신과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뜻이고, 아울러 영광스런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

질문:

1. 당신이 만약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빈 무덤을 보았다면,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혹은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2. 요한복음 20:11-17에서 왜 마리아가 무덤에 다시 갔었을까?
3. 마리아는 예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알아보았다. 고기 잡던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을 때 예수를 알아보았고 (요한 21:1-7), 두 제자는 예수께서 떡을 떼시자 알아보았다 (누가 24:35).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믿게 되었는가?
4. 성경에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전하라는 임무에 충실히 순종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 20:18).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당신의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5.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예를 들면, 부처, 모하메드, 메리 베이커 에디, 데이빗 코레스) 시신은 땅에 묻히고, 썩어 없어졌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냥 새로운 도덕이나 믿음 체계를 만든 후, 그냥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지 않고 부활하셨나?
6. 당신이 만일 죄를 고백하면 더욱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당신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의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

[참고]

실천에 옮기다: 실습

내일 점심,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슬람교 동료가 당신에게 와서 오늘 당신이 교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당신이 참석했다라고 말하면 그는 당신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어떻게 부활절에 대하여 설명하겠는가?

유대인의 장례법

유대인의 장례의식은 공통적으로 두 과정의 매장의식이 있다. 첫 번째 매장인데, 죽음 바로 직후나 하루가 지나서 행한다. 가족들은 이 의식을 준비하면서 죽은 이의 눈을 감기고, 향수와 연고로 몸을 씻긴 후, 천과 붕대로 단단히 시신을 감싼다. 이 과정을 거친 시신은 가족무덤이나 매장할 장소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추도문을 읽고 책상 위에 두거나 시신을 부패시키는 벽안에 안치시킨다. 때때로 시신과 함께 시신의 소지품을 같이 두는데, 이것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무덤을 파고 절도를 한다.

두 번째 매장은, 보통 가족들끼리 일년 후에 묘지에 모여서, 간단한 가족 추모식을 한다. 싸두었던 천을 벗기고, 뼈를 모아 묻거나, 먼저 죽은 친척의 뼈와 함께 묘실에 둔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시신이 없으면 유대인의 중요한 장례의식인 일년 후에 드리는 두 번째 매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다 (요한 20:11).